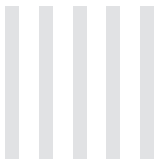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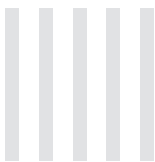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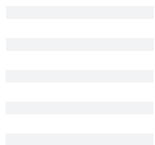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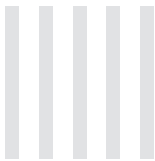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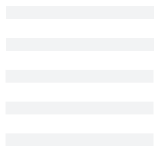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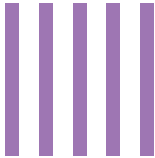




제2편

목포의 관광·체육



제1절 근대 개항 이후 목포관광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2절 해방 이후 목포관광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3절 1960~1970년대 목포관광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4절 1980~1990년대 목포관광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5절 2000년대 이후 목포관광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1장 목포 관광의 변천 과정

제1절 근대 개항 이후 목포관광

1. 개항과 근대도시의 형성

개항 전 목포는 일반인과 거리가 먼 군영이었다. 목포는 15세기 만호진의 설치와 함께 지명이 정해졌지만, 당시의 목포는 도시로서의 목포는 아니었다. 만호진의 수병들은 ‘선상수어(船上守禦)’의 원칙에 따라 병선을 타고 해상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만호진은 병선의 기항지 및 보급처의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당시 유달산 아래에는 도시를 이룰만한 적합한 공간이 없었다. 1897년 개항 직전까지도 목포는 유달산 아래에 150호 남짓의 가구가 몇 개의 마을로 나뉘어 옹기종기 산재해 있던 한적한 소촌락에 불과했다.⁰¹⁾

목포의 근대적 도시형성은 개항에서 시작되었다. 개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항·포구를 새로운 사회·경제적 중심지로 부상시키게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목포의 위상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전통 사회의 폐쇄된 체계에서는 주변적 지위에 있었던 목포가 일본인들의 이주와 함께 근대문물 유입의 통로로 자리매김하면서 급격히 근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⁰²⁾

목포의 개항은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자주적인 ‘칙령개항’, ‘자개항(自開港)’의 모양새를 갖추어 이루어졌다. 일본이 1895년 조선정부에 강요하여 체결한 「잠정합동조관」에 의거하여 타율적 ‘조항개항’으로 추진하려 하였지만,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1897년 7월 3일 의정

01) 강봉룡, 『예향』1, (재)목포문화재단, 2016.

02) 염미경, 「개항장의 형성과 목포의 식민도시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재편」, 『호남문화연구』4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8, 42~43쪽.

부에서 목포 개항을 의결하고 그 다음날 고종이 이를 재가하여 10월 1일 칙령으로 개항을 전격 선언하였다.

한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한 목포는 개항을 계기로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근대도시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목포는 개항을 맞으면서 기존의 개항지 상공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목포로 몰려들면서 근대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개항이후 목포는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었고 도시의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항장을 중심으로 숙박 등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

2. 근대관광의 시작과 여관의 등장

목포는 1897년 개항을 계기로 근대도시로 발전하였다. 개항으로 인해 작은 포구에서 현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관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 원산, 인천, 목포 등이 개항되어 외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목포의 근대관광은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선교 목적과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지배목적으로 목포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서구인과 일본인의 목포유입으로 변화된 모습중의 하나가 이들의 필요에 의해 초기의 형태이지만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촌락에 불과했던 목포는 개항장이 설치되면서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 및 기존의 개항지 상공인들과 인근지역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목포로 몰려오면서 근대도시를 형성하였다. 목포부사에 따르면 개항 2년 후인 1899년에 첫 여관이 생기고 요리점과 음식점뿐 아니라 카페와 유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⁰³⁾

『목포부사』의 기록에 의하면 목포에 처음으로 여관이 생긴 것은 명치 32년(1899)이라고 전해진다.

여관의 필요를 통감한 것은 개척 당시에 더욱 심하였으나 나아가 시설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시대에는 조선의 숙박업소에서 자거나 알뜰 모르든 먼저 와서 살던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던가 하는 수밖에 없었다.

목포에 처음으로 여관이 생긴 것은 명치 32년(1899) 대화정(대의동)의 송강(松岡)여관으로 푸줏간을 겸업하였다. 얼마 안 되어 지금의 000약방의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으나, 그 후 대정 초기에 폐업하였다.

03) 목포부, 『목포부사』, 1930, 803쪽.

이 시기 여관의 등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관광의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목포개항장을 방문한 외국인 및 국내 상공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여관은 개항이후 목포에서 최초로 생긴 현대적 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개항과 함께 부산, 인천 등지의 상공인과 목포 인근주민들이 하나 둘씩 터를 잡으면서 목포는 상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숙박시설 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해수욕장의 개발

개항과 식민화로 인해 일본인이 본격적으로 목포에 이주하면서 그들만의 위락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일본인에 의해 외달도 해수욕장이 개발된다. 당시 목포시민들은 현재 신안비치호텔 근처 대반동 바다 물놀이를 즐겼는데, 일본인들은 조선인들과 섞이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외달도 해수욕장이 개발된 배경이다. 목포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청정한 해역에서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청정한 바다를 중심으로 장소를 물색해 해수욕장을 만들게 된 것이다.

『목포부사』 기록에서는 외달도 해수욕장의 등장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목포부사』는 일본인들이 청정하고 안전한 수역을 찾아서, 여름철에 부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식자들이 통감하던 중, 소화 4년(1929) 마침내 외달도에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고, 상당한 설비를 하여 수영객을 맞아 크게 원근의 주의를 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외달도는 사랑의 섬으로 불리며 해수욕장과 더불어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이 개발되어 목포시민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해수욕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외달도는 목포시민의 사랑받는 관광지로서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 9경⁰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대반동 해수욕장 (박종길, 『사진속의 목포, 그 기억의 저편』, 『그리운 내고향, 목포는 항구다』 바다문화학교 22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194쪽.)

04) 목포 9경에는 유달산 풍경, 목포대교 일몰, 갯바위, 춤추는 바다분수, 노적봉, 목포진, 삼학도 이난영 공원, 다도해 전경, 사랑의 섬 외달도가 포함되어 있다.

4. 도로와 철도의 개설과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

목포는 1897년 10월 개항된 후 30여년 만인 1930년대에 전국의 6대 도시, 3대항으로 급성장한다. 목포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것은 목포가 가진 역사적, 군사적, 지리적 중요성 때문이다. 특히 목포는 영산강을 통해 전라도 내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특히 조운로의 길목에 위치한 점,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삼각항로의 중심에 위치한 점 등에서 전라도 지역의 여타 항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⁰⁵⁾ 특히 안정적인 미곡을 공급해 줄 보다 풍부한 미곡산지에 접근할 필요성이 절감했던 일본 측에서는 목포의 개항 필요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처럼 목포는 일본 소비시장의 거점 창구 및 쌀과 면화 반출을 위한 집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항구개발, 시가지 개발 등 도시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수탈의 중심 도시로 국도 1호선(1911)과 호남선 개통(1913)으로 인해 목포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 당시 목포를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상업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비즈니스 목적의 관광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여행에 대한 기록은 1910년 후반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1912년 철도호텔을 건립한 것으로 보아 철도여행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⁰⁶⁾

목포도 이 당시 철도역과 항구를 주변으로 철도호텔과 해원이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목포구도심 근처에 목포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휴식처와 숙박 시설을 겸하는 해원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목포 해원, 목포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휴식처 및 숙박시설

서남권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목포가 개항되면서 전국적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철도 등의 개설로 인해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역세권 상업시설이 발달하게 되고 여행자를 위한 철도호텔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05) 홍석준, 「근대문화유산 관련 담론을 통해 본 도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한국학연구』1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81쪽.

06) 구글자료.

제2절 해방이후 목포관광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까지의 시기는 혼란의 시기로서 관광의 관점에서 볼만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은 없었다. 이 시기 모든 도시들이 그랬듯이 목포도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해방과 전쟁 등으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도시계획이 없다보니 여러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것은 목포가 현대도시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일본식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했다. 1949년 4월 1일 일본식 정(町)과 통(通)을 모두 동(洞)으로 개칭하였고, 1949년 7월 4일에는 법률 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목포부를 목포시로 하였다. 이 때 목포가 맞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였다. 해방 전에 72,981명이던 목포인구는 1946년에 10만 3천명으로 급증하고 해방 이듬해인 1949년에는 11만 1천명까지 늘어나 12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때 늘어난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귀환자, 남하동포, 교외의 타지방 전입자 등이었다.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일러 가도시화(假都市化) 현상이라고 하며 이 시기 목포의 도시문제는 모두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었다.⁰⁷⁾

게다가 목포는 6·25전쟁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무질서 혼란 속에서 기성 시가지는 과밀화하였고 도심 주변의 유달산, 송도공원과 같은 국공유지 혹은 해방 전 일본인 소유지였던 대성동·산정동의 산기슭 등이 불법 점거되어 소규모 불량주택이 들어차서 개발이 어려운 불량거주지로 변했다. 이때 유달산은 푸른 나무그늘조차 볼 수 없게 황폐화된 벌거숭이산이 되어 버렸다. 이미 목포의 인구는 자체 해결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중된 압력에 밀려 사람들은 목포를 떠났다.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는지 1955년을 기점으로 목포의 인구는 오히려 격감하게 된다.

제3절 1960~1970년대 목포관광

1. 소풍명소 갯바위 부상과 관광마차의 등장

전쟁을 겪은 후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고 정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내에서의 여행 및 여가문화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 물론 현대적 의미의 관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가나 위락차원에서의 여행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목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0년대 목포시민이 가장 즐

07) 고석규, 「항구도시 목포의 빛과 그림자」, 「그리운 내고향, 목포는 항구다」 바다문화학교 22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16쪽.

겨 찾았던 여가관광의 공간은 오늘날까지 목포관광을 대표하는 곳 중의 하나인 갯바위이다. 목포 시내에서 자동차나 위락시설이 별로 없었을 때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장 많이 찾아간 곳은 갯바위였던 것이다.

박종길은 「사진속의 목포, 그 기억의 저편」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⁰⁸⁾

갯바위는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과일 농사를 짓고 있었고, 입암산을 비롯한 바닷가 풍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봄이면 딸기부터 시작해서 토마토, 포도, 비파, 무화과 등 색다른 과일이 풍부한 갯바위는 유일한 나들이 장소였고 소풍지였다. 당시는 가족, 친구들과 야유회 겸 간단한 소풍은 의례 갯바위로 정해졌는데 딸기나 토마토는 물론이고 설탕봉지까지 마련해서 들고 다녔다고 한다. 현장에 가면 원두막이나 나무 밑 평상에 앉아서 잡담도 하고 과일도 먹으면서 보내는 일이 유일하였다. 그리고 목포시내의 각급 학교학생들의 단골 소풍장소는 갯바위가 으뜸이었다. 아마 갯바위에 소풍을 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시는 대부분의 소풍장소가 수원지, 군산동, 갯바위, 용당리 등지로 정해져 있었다. 어떨 때는 갯바위에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몰려 인산인해를 이룬 적도 많았다. 지금은 차량도 많아졌고 길도 넓혀져 다니기 수월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걸어서 왕복했다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산이 안장산이며 길가에는 마을의 샘이 있어서 오가며 그 샘물을 마시며 세수도 하고 다녔고 지금은 길의 끝에 해양문화재 연구소의 보전처리소가 들어섰다.

갯바위가 시민의 소풍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갯바위에 마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 등장한다.⁰⁹⁾ 목포 최초의 관광차로서 갯바위를 왕복한 마차였다. 목포에는 모든 화물을 실어 나르는 마차가 있어서 화물운송과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데는 거의 마차가 그 몫을 담당했었다. 세월이 흘러 차츰 화물운송은 편리한 자동차가 대신하면서 마차로는 자동차를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 둘 폐업하거나 전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게 시내에서는 하나 둘 마차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마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쇠퇴해가는 마차를 활용한 관광마차를 등장시켰다.

당시 갯바위에 가려면 시내에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렇다 할 위락시설이나 유원지가 없었던 시절 갯바위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광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장소를 택해서 나들이 하곤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관광마차가 나타나 입구에서 중바위 부근까지 타고 다닐 수 있었으니 호기심 겸 재미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관광마차는 그

08) 박종길, 「사진속의 목포, 그 기억의 저편」,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바다문화학교 22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09) 같은 글.

당시 목포의 명물이 되었다.



그림 3 갯바위 마차관광 사진(박종길, 「사진속의 목포, 그 기억의 저편」, 『그리운 내고향, 목포는 항구다』 바다문화학교 22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194쪽.)

2. 목포공항 건설

1967년, 그 해 목포는 제7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여당) 후보 첫 지원 유세를 목포에서 가질 정도였다. 유세에서 정국 안정을 역설했던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내무부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당 후보 10명이나 20명이 떨어져도 야당 후보 김대중을 절대 당선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관계 장관들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와 ‘목포개발’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다양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낸다. 그 속에는 삼학도(국유지) 관리권 목포 이관과 함께 제분공장 설립도 들어있었다. 목포 시내에는 천문학적인 현금과 밀가루가 뿌려졌다. “막걸리로 홍수를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았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¹⁰⁾ 이 당시 목포

10) 『신문고 뉴스』 2017. 01. 31. 「호남제분 설립자 이용구 회장, 그의 발자취」.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목포공항¹¹⁾으로 1969년에 개통하였다. 목포공항의 개통은 1910년대 국도와 철도의 개통이후 60여 년만의 일인데, 목포는 이로써 도로, 철도, 항로, 항공 등 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한 접근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3. 문화예술행사 유형

1970년대 목포에는 뚜렷한 관광자나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다. 갯바위와 유달산 정도가 시민이 소풍과 관광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국민의 일치된 단결과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과 같은 지역단위 문화행사나 축제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던 시기였다. 목포도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가 열



그림 4 시민의 날 행사로 행해진 남국민학교 가장행렬 (박종길, 앞의 글.)

렸고 이 행사를 중심으로 시민의 여가와 문화가 행해졌다. 목포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한 시민체육대회는 학교의 운동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목포시민의 날은 목포 개항일인 1897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유일한 시민행사였다. 각 동이나 학교에서 단체의 상징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한 가장행렬은 웃음거리가 많았다. 요즘처럼 전자기기의 활용이 아닌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이었기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시민의 날은 1963년 10월 1일부터 개최됐는데 일찍이 목포예총에서는 1959년 11월 12일부터 목포예술제를 개최했는데 시민의 날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매년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하여 예향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1) 목포공항은 1969년에 개항하여 1970년부터 서울-제주 노선의 중간 경유지로 운항을 시작하였다. 1992년 7월 (주)대한항공의 목포-서울 간 노선이 개설되었고, 12월에는 (주)아시아나항공도 취항하였다. 1993년 (주)대한항공의 목포-제주 간, 1994년 목포-부산 간 노선이 개설되었다. 1992년 4월부터 한국공항공단(현 한국공항공사) 목포지사에서 관리·운영하였으나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2007년 11월 8일 폐쇄되었다.

제4절 1980~1990년대 목포관광

1. 유달산 조각공원

1982년 10월 유달산공원화사업의 하나로 개원한 국내 최초의 야외조각공원으로 유달산 자락 이등바위 아래 있다. 이는 1987년 제주조각공원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각공원보다도 이른 개관이다. 미술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매진했던 장성 출신의 조각가 김영중(1926~2005)이 조성했다.¹²⁾ 1960~1970년대의 주 소품지가 갯바위였다면 유달산 조각공원은 1980년대 목포시민의 소풍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곳이고 오늘날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2. 관광호텔의 등장

1987년 8월 목포에 관광호텔이 첫 등장하였다. 신안비치호텔은 객실 123개와 카페, 식당과 같은 부대시설 등을 갖춘 리조트호텔로 2004년 평화광장의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이 개관하기 전까지 목포 유일의 관광호텔이었다. 대반동 유달 해수욕장 뒤에 위치한 신안비치호텔의 해수풀장은 해수욕장이 모래유실로 인해 공원화 되자 2000년대까지 시민들의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았다.

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

1994년 해양관광도시 목포를 상징할만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된다. 1980년 신안 해저 유물 발굴 이후 해양유물 관련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따라 계획이 잡히게 됐으며 1993년 현재의 자리에 준공되면서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國立海洋遺物殿示館)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황해안에서 발견되는 고선박 및 유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감당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전시관 내부에는 신안인근에서 발견됐다하며 붙여진 신안선의 거대 모형을 중심으로 전시물이 진열되어 있으며 대개의 유물은 12세기 초 고려청자의 원산이었던 강진을 거쳐 개경으로 향하던 배가 침몰하면서 남은 유적들이다.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에서 인양한 고려항해선, 진도군 벽파진에서 인양된 세계 최대의 통나무배 등도 보존 처리되어 있다. 비단 해양유적뿐 아니라 그림, 서예 등 다양한 분야의 유적을 기획 전시로 선보이고 있으며 바다문화학교를 운영하여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을

12) 『광주일보』 2016. 03. 30. 「조각가 김영중과 장성군, 중외공원 무지개다리, 목포 유달산 공원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한편 방학 중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다교육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4. 문화관광축제의 본격적 등장

1995년 6월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목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 진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기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진흥은 경제적 효과이외에 지역고유 이미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전체적으로 관광 상품과 자원이 다원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취약한 지방재정 등으로 지역차원에서의 독자적인 관광정책 추진여건은 미흡하였다.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광정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진흥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문화관광축제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역관광 진흥정책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목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관광 진흥의 방편으로 축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목포시는 1996년부터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와 목포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축제를 개최하였다.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는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에 희망의 봄소식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꽃을 주제로 시민의 화합과 응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민한마당행사가 1996년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로 시작되었다. 또한 목포의 생활자기 및 전통자기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포도자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행남자기라는 향토기업의 존재가 축제개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달산 축제는 목포시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996년에 시작되었다. 유달산은 목포를 상징하는 영산으로 해발 228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기세가 웅장하고 갖가지 기암괴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상봉인 일등바위에 오르면 바다와 섬들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어렵다. 유달산이 가장 아름다운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유달산 둘레로는 개나리, 벚꽃, 목련 등 다채로운 봄꽃들이 만개하여 먼발치에서의 유달산은 가히 노란 비단수를 놓은 듯하며 벚나무의 분홍빛 꽃비와 함께 숨 막힐 듯한 화려한 경관을 연출한다. 이렇듯 자연의 경이와 함께 펼쳐진 봄꽃의 화려함과 남도의 명산 유달산을 배경으로 전국의 수많은 상춘객들을 불러들여 자연스럽게 신명이 넘쳐흐르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국토의 시발점이며 종착지인 목포에서 남녘의 화신(花信)이 유달산에 이르면 가장 먼저 봄꽃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자연과 사람, 예술이 하나 되는 축제로 거듭났다.¹³⁾

13) 목포시 (<http://www.mokpo.go.kr>, 2017. 10. 25).

5. 평화광장 조성

1990년대 하당신도심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하당신도심에서 바다가 인접한 지역에 평화광장이 만들어진다. 평화광장(平和廣場, Peace Square)은 하당신도심의 바닷가에 있는 광장이다. 좁게는 춤추는 바다분수 앞쪽 광장을, 넓게는 남쪽으로 갯바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 평화의 구름다리까지 포함한다.¹⁴⁾ 본래 이름이 미관광장이었으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여 평화광장으로 개칭하였다. 매년 여름철 목포시의 최대축제는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여기서 개최되었다. 미관광장에는 본래 반형태의 돛의 공연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돛이 철거되었다. 광장 양쪽 끝에는 각각 매점과 화장실이 있다. 또한 평화광장 앞 바다에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부유식 목포 바다음악분수가 있어 목포 밤바다를 아름답게 한다. 오늘날 평화광장은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시의 대표적인 관광랜드마크로서 목포 시민이 사랑하는 문화공간이자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제5절 2000년대 이후 목포관광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목포관광

2000년대는 중앙정부에 의해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처음 기획되어 추진되었다.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필두로 해서 오늘날 전국에 7개의 광역관광권이 지정·개발¹⁵⁾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관광을 통한 지역개발과 동서지역의 통합을 위해 부산에서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해안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2000년 남해안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국내외 관광거점지역으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관광개발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21세기 해양지향의 국토개발축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동서화합 등의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¹⁶⁾

14) 「평화광장」,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15) 7개의 광역관광권에는 남해안 광역관광권,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지리산권 광역관광권, 서해안 광역관광권, 동해안 광역관광권, DMZ평화생태관광권, 중부내륙 광역관광권이 포함되어 있다.

16) 심원섭, 「전남 지방자치 20여 년의 관광정책 성과와 평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폴리테니아, 2016, 258~262쪽.

전라남도는 본 사업에 총 35개 지구의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목포는 삼학도 복원사업, 고하도유원지,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는 4조 1455억 1500만 원이며 국비 5187억 7500만 원으로 12.5%, 지방비 6608억 7500만 원으로 15.9%, 민자 2조 9658억 6500만 원으로 7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총 사업비는 2조 551억 7000만 원으로 국비 2655억 원, 지방비 3331억 7000만 원, 민자 1조 4565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목포시는 총 사업비가 1090억 원으로 전라남도 사업비의 5.3%에 해당된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추진 이전의 관광개발사업은 국비 보조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지역의 경계를 아우르는 권역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관광개발을 통하여 낙후 지역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도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목포가 본격적으로 관광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목포의 관광기반시설 투자 및 자원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목포의 관광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표 1 남해안 관광벨트 목포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계획액				
		총 사업비	공공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전남	계	2,055,170	598,670	265,500	333,170	1,456,500
	소계	109,000	109,000	42,800	66,200	-
목포시	고하도 유원지	27,200	27,200	12,700	14,500	-
	삼학도 복원사업	61,000	61,000	23,900	37,100	-
	자연사박물관관건립	20,800	20,800	6,200	14,600	-

출전: 문화체육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평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 지정

목포시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자산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동북아의 관광거점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3월 전라남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에 이르는 6.9km²지역을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로 2007년 9월에 지정받았다.

2008년 1월 유달산, 갯바위, 평화광장에 관광특구 지정을 알리는 권역별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자율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외 여행사 및 주한외국인대사관 등에 관광특구 지정

을 홍보했고, 관광시설 정비, 외국인 이용시설 확충,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 안내판, 편의시설 확보 등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세계 최초 부유식 바다음악분수, 춤추는 목포바다분수

오늘날 목포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인 세계 최초 부유식 바다음악분수가 만들어졌다. 2006년 타당성 조사 이후 4년 만에 현재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랜드마크 중의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에 수반길이 150m, 높이 3.5m, 최대분사 높이 70m의 세계 최초 부유식 바다음악분수이다. 목포항을 형상화한 부채꼴 모양의 노즐배치와 삼학도를 상징한 원형의 3개 노즐이 있으며 상부의 조형물은 항구도시 목포를 상징한다.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는 그 웅장함을 자랑한다. 73개의 회전노즐과 203개의 에어노즐, 292개의 LED조명, 63개의 경관조명이 어우러져 다양한 모양이 표출되면 음악과 분수의 다이내믹한 연출, 워터스크린의 영상공연 및 레이저 쇼는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있다.

표 2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현황

시설명	세부내역	수량
분사용 노즐(276대)	회전노즐	73대
	에어노즐	203대
해수분사용 펌프	회전노즐용	73대
	워터스크린용	5대
레이저(3셋트)	풀칼라(30w)	1대
	그린칼라(18w)	2대
조명(355대)	컬러체인지	63대
	LED	292대
에어컴프레서	각 100HP	7대
워터스크린	분사형	1식
빔프로젝트	20,000안시	1대

자료: 목포시 춤추는 바다분수 홈페이지.

4.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과 목포관광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이후 후속사업으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5대 테마 콘텐츠(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를 통하여 이야기가 있는 해양 문화관광공간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관광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통한 녹색성장의 관광지역 조성, 관광산업의 효과가 지역에 확산되는 지역기반형 관광지역 조성, 자원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된 통합관광지역 조성, 독특한 테마 자원 및 사업을 통한 특화 관광지역 조성, 효율적 관광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있는 관광지역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 등의 테마를 중심으로 남동권(부산광역시, 김해시,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중권(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보성군, 고흥군), 남서권(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영암군)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목표는 남서권의 거점도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이순신 테마와 관련해서 고하도 충무연수원 조성사업, 크루즈 사업으로 목포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5.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와 목포관광의 현황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치러진 곳은 영암이지만 그 혜택을 본 곳은 목포권역이다. 경기장 인근에는 관계자들과 방문객을 위한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목포시내에 있는 호텔과 모텔 등이 경기 동안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수가 점점 줄더니 결국 2014년 경기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 F1 경기장은 자동차경주대회, 차량 테스트, 아마추어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카트체험과 모터락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표 3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전남지역 공간과 거점 지역

권역	전남 해당시군	거점 도시	거점 관광단지	해당 테마					연계 도시
				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	
남서권 (West Zone)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영암군	목포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목포 해남	신안 진도	해남	진도	목포	강진 장흥 영암
남중권 (Center Zone)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	여수화양 관광단지	여수	여수	보성	순천	여수	광양 고흥

출전: 문화체육관광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중간평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6. 새로운 랜드마크,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목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유달산과 고하도를 해상케이블카로 연결하여 랜드마크로 활용하려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총연장 3.23km(해상 0.82km, 육상 2.41km)로 목포시 최초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노선은 유달산 서면(리라유치원 앞)에서 출발해 관운각 인근 상부승강장을 거쳐 목포 앞바다 위를 통과해 고하도까지를 왕복하는 구간으로 국내 최장이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198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설치계획을 수립했지만 관광 기반시설 부재, 일부환경단체 반대 등에 가로막혀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KTX, SRT,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꾸준히 확장되고 관광콘텐츠가 확충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선6기 시장의 강력한 사업의지에 힘입어 30년 만에 착공하게 되었다.

표 4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개요

위치	유달산 일원~고하도 일원
구간	유달산 리라유치원 앞 ↔ 마당바위 밑(관운각 인근) ↔ 고하도 공생재활원
연장	총 3.23km(해상 0.82, 육상 2.41)
시행방법	민간자본유치(총 498억 원)
사업기간	2016~2018년

자료: 목포시 제공.

한편, 목포시는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목포 앞바다 고하도를 ‘목화섬’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고하도는 1904년 일본인들이 미국 면화의 하나인 ‘육지면’을 처음으로 들여와 재배에 성공, 전국적으로 보급한 곳이다. 목포시는 고하도에 82,500㎡ 규모의 친환경 목화단지를 2018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2013년 이곳에 복원한 목화밭(2,312㎡)이 ‘추억의 관광상품’으로 주목을 받아 규모를 키우게 됐다. 2012년 6월 북향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대교가 개통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목포시는 이 목화밭을 도는 둘레길을 만들고, 사진촬영 구역 등의 공간을 설치한다. 또 목화 따기, 목화솜 타기, 씨 뽑기, 물레 돌리기 등을 손수 해볼 수 있는 체험관을 2019년까지 만들 계획이다.¹⁷⁾

17) 『경향신문』2016. 06. 27 「국내 첫 목화재배지, 전남목포 고하도 ‘목화섬’으로 개발」.



그림 5 목포해상케이블카 노선도(목포시 제공)

7.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목포는 근대개항 도시로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한 개항도시의 흔적이 시내 원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 목포는 하당신도심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주요 기능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되었으나 2014년부터 원도심인 목원동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도시현대화 방식과는 달리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관광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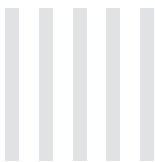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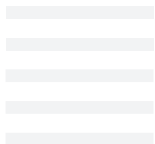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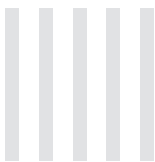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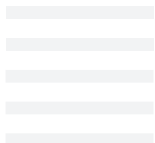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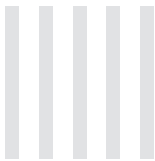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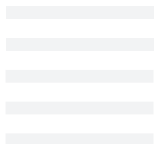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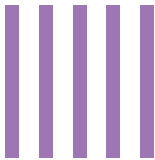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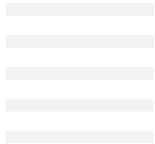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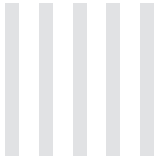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의 활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마을기업 추진 등 주민참여전략,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 등 상가활성화 전략, 주택개량지원 및 경관관리 사업시행 등 정주인구 안정

화 및 유입전략, 마중물 핵심사업인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 등 관광객 유입전략이 추진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유희시설 활용 역사·문화·관광활성화사업, 관광루트 조성 및 추진사업, 목포특화장터사업, 상권 활성화 이벤트 및 축제추진사업, 주택개량지원 및 경관관리사업, 안전하고 정감있는 마을 조성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마을기업 추진사업,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사업,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의 일부를 목원동이라 칭하고 골목길을 중심으로 목포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들여다보는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목원동 관광활성화를 위해 육성한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 진행되어 도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림 6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상도(목포시 제공)



제1절 항구도시로의 여행

곽행구 |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제2절 골목길

류용철 | 목포시민신문 대표이사

제3절 항도의 축제와 문화행사

김병원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제2장 목포 관광의 현장

제1절 항구도시로의 여행

1. 항구도시, 목포 여행의 매력

1) 바다를 볼 수 있고, 항구의 정취가 묻어 있다.

목포는 무안반도의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도해로 가는 관문이다. 내륙과 서남해안을 이어주는 여행의 길목이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처럼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나가는 배는 대부분 목포항에서 출발한다. 또한 목포는 대한민국 내륙 남단의 국도 1호선의 시점이며, 호남선고속철도의 종착역으로 종점으로 목포의 해안은 북항에서부터 목포해양대학교, 대반동, 목포여객선터미널, 동명동 어시장, 삼학도, 갯바위, 하당 평화광장, 영산강 하구둑으로 연결되는 바다의 워터프런트이며 항구의 정취와 해안도시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 남도 문화예술의 진수가 있다.

목포에 오면 문화의 거리가 있다.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시설들이 밀집되어 문화예술의 다양한 체험여행이 가능하다. 남종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남농기념관,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는 남도문화예술의 요람인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또한 목포의 공예, 건축, 첨단세라믹 등 생활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문학으로서 소설가 박화성, 희곡작가 차범석 선생 등 문학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볼 수 있다.

3) 목포는 근대역사문화의 박물관이다.

1897년 10월 1일 고종 황제는 목포를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 경흥 등에 이은 다섯 번째 개항이다. 특히, 이국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개항한 첫 번째 칙령 개항장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거주지와 각국 공동거류지인 일본인 마을로 나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들을 전시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이 목포근대역사관1, 2관이 있다. 1관은 1900년 12월에 목포 일본영사관으로 지은 것이다. 2관은 일제침략의 실증적 유적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중 한 곳으로 조선농민수탈기관이었다. 유달산 밑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거주지역의 경계공간인 오거리가 있다. 오거리는 목포원도심의 핵심공간이자 근대문화도시로서의 상징적 공간이다. 유달산 자락에는 근대문화유산 자원을 따라 골목골목을 여행하는 옥단이길이 있다. 이곳을 걸으면 목포의 역사 흔적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목포 구도심 일대가 근대문화 생태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맛'이 있다

정신을 깨우는 짜릿한 홍어맛, 갯벌 속의 인삼 세발낙지, 쫄깃하고 달콤한 민어, 통통한 살이 감칠맛을 더하는 갈치, 깊은 속살이 싱싱함을 전하는 꽃게무침은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가득하다. 남도맛의 진수 바로 목포이다. 목포의 음식은 예로부터 '맛의 예술'로서 최고로 꼽았으며 남도 음식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어도 손맛이 있고 인심이 있고 맛깔스럽기로 유명하다. 목포의 5미는 세발낙지(갯벌 속에 있는 인삼), 홍탁삼합(홍어, 돼지고기, 김치, 막걸리), 꽃게무침(껍데기 없는 게살 무침), 민어회(풍부하고 담백한 맛), 갈치조림(번쩍이는 은빛 속 보드라운 속살)으로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다.

5) 젊음과 도시의 문화가 있다.

잔잔한 바다 위, 워터 스크린에 감미로운 선율과 화려한 빛, 거대한 물줄기 춤에 맞춰 스토리가 있는 레이저쇼와 함께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주말이면 연인들이 하당평화광장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서로 만남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방송 사연을 음악분수와 함께 들려준다. 목포 오거리 원도심에는 쇼핑객과 젊은이들이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일명 로데오 광장이 있다. KTX를 타고 온 젊은이들이 원도심의 먹거리 명품을 찾아온다. 코롬방 제과의 치즈바게트, 새우바게트 등과 목포 중앙시장 인근 도심관통도로 주변에 '1914년 남행열차 포차'가 있다. 남행열차 포차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목포만의 특화된 별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2. 목포 주요 공간별 여행지

항구도시 목포는 공간을 구분해 보면 유달산을 중심으로 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과 근대역사문화의 거리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평화광장이 있다. 하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카페, 식당 등 도시 주거 및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현대적 목포의 멋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항구도시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는 대반동 바닷가와 북항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 클러스터 지역으로 목포의 시서화 등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목포 문화의 거리이다. 그리고 무안군 전남도청 인근 지역으로 새롭게 조성된 옥암지구가 있다. 목포여행은 구도심과 신도시, 전통과 현대를 느낄 수 있으며 항구도시로서 바다의 향기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 유달산권

목포사람, 목포하면 떠오르는 곳이 유달산이다. 그곳에 오르면 아기자기한 다도해가 펼쳐지며, 목포항과 삼학도, 그리고 밤이면 시내야경과 목포대교의 불빛을 볼 수 있다. 목포시는 유달산을 중심으로 하여 항구와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목포역에서 KTX를 타고 내리면 처음으로 보이는 곳이 유달산이기도 하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노적봉’이 있으며, 옛적 유달산 사진에는 이순신장군의 동상과 노적봉이 포토존이 되곤 하였다. 특히, 일등바위에 오르면 아래로 펼쳐지는 다도해는 장관이며,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다도해 풍광은 목포를 대표하는 경관 중 일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달산권에는 목포 근대역사관 1, 2관을 비롯해 일본식 정원이 눈길을 끄는 이훈동 정원과 유달초등학교 등 거리를 걸으며 지금도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물을 둘러볼 수 있다. 유달산에 오르면 근대문화거리가 한눈에 보인다. 110년의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골목을 걸으면 그 추억마저 생생해지는 곳이다.

근대역사 거리를 걸을 땐 나도 모르게 숙연해질 만큼 옛날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튼튼하게 지어 놓은 목조 주택, 언젠가는 화려한 여인들이 수없이 오갔을 백화점, 지금은 동네 어딘가에서 굽은 허리로 밖을 내다보고 계실지 모르는 할아버지가 다녔을 초등학교 건물. 모두가 역사 속의 한 자연이고 현장이다. 최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변모된 목원동에는 주요 문화유적 19개소를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연결된 옥단이길이 있다. 호남선의 출발점인 목포역, 청소년 문화메카인 로데오광장, 전남최초 교회인 양동교회 등 목포에 얹힌 문화역사의 길이다. 옥단이길은 총 연장 4.6km, 탐방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다. 그곳에는 유달산을 오르는 3개의 노선이 있는데 목마르뜨거리, 김우진거리, 구름다리 거리이다. 또한 근대문화유적의 흔적들이 많다. 목포민중의 집합터인 만인계터, 조선인 삶의 애환이 있는 콩나물 동네, 목포최초 경찰서인 무안경무서터, 예술인 요람인 유달예

술타운, 김우진 문학산실인 북교동성당, 목포최초시장인 중앙식료시장, 가요계의 거장 남진생가가 골목길을 따라 연결되어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로 손색이 없다.

“목포는 항구다”. 이난영의 노래제목처럼 항구 이미지는 목포 선창가에서 느낄 수 있다. 비릿한 생선내음과 동명동어시장 주변은 그 유명한 홍어와 건어물 등을 팔고 사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다. 골목을 빠져 나와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입만 잡쉬 보소.” 하며 내 발길을 멈추게 하는 상인에게선 ‘역시, 목포구나!’ 싶을 만큼 푸근한 인심도 느낄 수 있다.

유달산 일대에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문화에 관련된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지가 입지해 있다. 유달산의 노적봉, 오포대, 조각공원 등 유달산 남쪽자락에는 온금동의 다순구미 마을이 있고, 그곳을 언덕삼아 넘어가면 성옥기념관, 이훈동 정원이 있다. 또한 목포원도심 일대는 오거리, 코름방 제과, 목포근대문화관 1관(구 일본영사관), 목포 근대역사문화관 2(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역사문화전시 공간과 목포의 삶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다.

근대문화 여행코스는 붉은 벽돌의 일본식 건물과 오거리 도심 상가 주변을 거닐면서 맛있는 음식을 체험하기 좋은 코스다. 무안동에 위치한 오거리는 일본인마을, 조선인마을, 유달산, 목포역, 선창가 다섯 곳으로 통하는 교차로여서 오거리다. 개항이후 목포의 중심지였다. 오거리는 광복이후에도 주변에 영화관, 다방, 서점, 약기점, 화방 등이 곳곳에 있어 문화예술의 거리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목포역은 구도심의 상징이자 목포여행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주변은 100년 전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 코스는 목포역 → 동본원사 → 목포근대역사관 1관(구 일본영사관) → 성옥기념관 → 이훈동 정원 → 목포근대문화역사관 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 유달초등학교를 거쳐서 유달산 노적봉 주변으로 오를 수 있다. 유달산에 오르려면 노적봉 부근에 차를 주차하고 계단을 오르면 이순신장군을 만나고 오르면 된다. 유달산에는 경관이 좋은 곳에는 쉬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정자인 루와 각이 있다. 대학루와 이난영 노래비를 지나 달선각, 유선각, 관운각의 정자를 지나서 마침내 일등바위에 오르게 된다. 또 하나의 코스는 유달산의 능선을 따라 허리를 돌아서 숲길을 지나는 12km에 이르는 유달산 둘레길을 따라 가는길이다. 목포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힐링하는 길이며 관광객들에게는 목포 시내를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유달산을 내려오면 바다를 따라서 항구와 어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난다.

항구주변은 목포역에서 내려 오거리를 지나서 바다 쪽으로 가면 동명동 어시장 주변의 고깃배들이 드나들고 멈추어 서있는 곳이 있다. 항구의 풍경이 있는 곳이다. 목포역 → 오거리 → 동명동어시장 → 목포항 → 항동시장 → 국제여행객센터미널 → 해안도로 → 대반동 유달해수욕장 → 목포해양대학교로 연결된다. 이곳에서는 해안도로를 따라 목포 고하도 용머리와 연결되는 목포대교가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표 1 유달산권 주변 관광자원 현황 및 특징

구분	특징	사진
조각공원	·목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달산 기슭 이등봉 아래 들어 선 조각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야외 공원으로 46점의 국내외 작가 작품이 유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노적봉 예술공원	·노적봉 예술공원은 에항 목포에 걸맞는 미술작품 전시실과 종합홍보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으로 목포를 대표하는 종합 문화예술 전시장 및 휴식 공간임.	
목포근대 역사관 1	·근대역사관 본관(구 일본영사관)은 목포 최초의 서구적 근대 건축물로 당시 중국 시아먼에 있는 영사관과 함께 일본 재외 영사관으로 쌍벽을 이루었다고 함. ·구 일본 영사관은 목포의 근대역사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기 위한 근대역사관 본관으로 목포의 근대역사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음.	
목포근대 역사관 2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1999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복원 기념으로 목포의 근대역사가 담긴 사진을 전시하는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성옥기념관	·유달산 아래 아늑히 자리 잡은 성옥기념관은 (주)조선내화 창업자인 성옥 이훈동의 미수를 기리기 위해 선생의 자녀들이 건립한 문화공간으로 그가 수집한 근현대작품 등 다양한 고미술 작품과 도자기 등을 감상 할 수 있음.	
이훈동 정원	·호남지방에 유일하게 보존되어 온 일본식 정원인 이훈동정원은 한국 야생종과 외래 수종 등 113종의 수목과 원주형, 직부형, 설견형 등의 일본식 석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군의 아들, 아인사대 촬영지이기도 함.	

2) 갯바위권

갯바위권은 뒤로는 입암산이 있고, 앞으로는 목포 삼학도가 펼쳐 보이는 곳이다. 30여 년 전에는 학생들의 소풍코스로 이용되거나 과수원현장 쇼핑가든으로 이용되던 갯바위는 그 주봉(121m)이 샷갯을 덮어 놓은 것 같이 생긴 바위산(입암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입암(笠岩)은 갯바위 문화의 거리 입암산을 지칭한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갯바위와 입암산은 원래 한줄기이다. 현재 입암산 일대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목포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지해 있어 문화예술거리라고 부른다. 바다와 산과 문화가 있는 곳이다. 입암산 밑에는 갯바위가 있다.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되었는데 해상보행교가 시설되어 있어 갯바위를 바다 쪽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인 모습이 절묘하다. 갯바위 전면의 바다에 해질녘 갯바위와 바다에 투영되어 펼쳐지는 장관을 표현하고 있다. 해질녘 입암산을 원경으로 하고, 근경으로 시각의 초점이 되는 갯바위를 형상화 하고 있다.

갯바위공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바위는 오히려 바닷가의 ‘중바위’이다. 이 바위는 높이 8m짜리와 6m짜리 두 개로 이뤄져 있으며 수만 년 파도에 침식당해 마치 중이 샷갯을 둘러쓴 형태를 하고 있다. 갯바위권 내에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다. 탁 트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안로와 입암산 산자락 밑에 조성된 각종 문화예술 테마시설들이 운치를 더한다. 각종 전시장, 박물관, 기념관 등이 모여 있어 목포의 모든 문화를 두루두루 체험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목포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문예역사관, 목포문학관 등 전시장소가 풍성하다. 갯바위 터널을 지나면 하당 신도심이 나온다. 하당신도심은 1990년대부터 택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그곳에는 기존의 미관광장이던 것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발 맞춰 평화광장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도시문화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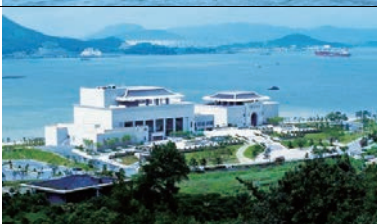
평화광장의 바닷가 주변에는 음악분수가 있어 젊은 연인들의 노래하는 쉼터이다. 춤추는 음악분수는 빛과 음악, 워터스크린 영상 등으로 목포의 이색적인 볼거리이자 목포 낭만바다의 상징물이다. 춤추는 음악분수로 인하여 갯바위-평화의 구름다리 구간 1.2km를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로 지정하고 목포바다를 향한 사랑의 문이라는 하트형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춤추는 바다분수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러브게이트로서 여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목포 평화광장 → 달맞이 공원 → 갯바위 문화의 거리(목포자연사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문학관, 남농기념관, 중요무형문화재전수 교육관) → 삼학도의 코스로 연결되어 목포문화예술의 진수와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평화광장 주변에는 유명한 식당과 호텔, 해안가 주변의 커피숍들이 있어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

표 2 갯바위권 주변 관광자원 현황 및 특징

구분	특징	사진
목포 춤추는 음악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한국관광기네스에 등재되었고, 목포항을 형상화한 부채꼴 모양과 삼학도를 상징한 조형물, 유달산 모형의 구조물(수반길이 150m, 최대분사 높이 70m) · 환상적인 음악과 분수, 영상, 레이저 빛이 뿜어내는 다이나믹한 연출 	
목포자연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사관은 공룡모형, 화석, 식물, 곤충, 조류, 어류표본 등 총 4만여 점의 방대한 자료 소장 ·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발견된 국내 유일의 초대형금 육식공룡등지화석을 만나 볼 수 있음. 	
국립해양 문화재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해양유물전시관이며, 신안해저유물과 고대 선박 발달사와 송·원대 도기문화 등을 보존 전시 · 원도선실, 신안선실, 어로민속실, 선박사로 구분하여 전시 	
중요무형 문화재전수 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며, 가예능의 기법을 전승보존 · 옥장 장주원(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00호)의 옥공예품 전시와 전수생들의 교육장인 공방이 있음. 	
목포생활 도자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에 의해 현대적 생활도자 공장 건립 · 각종 산업도자기, 체험공방, 이색전시품 등 전시 · 식기류, 세면대, 인공치아 등 생활 속의 도자기 전시 	
문예역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농회의 대가인 남농 허견 화백과 미산, 소치 등 윤림산방 3대의 동양화 40여 점을 비롯, 수석과 세계의 화폐, 세계 각국의 희귀 산호, 살아있는 산호 수족관이 있음. 	

구분	특징	사진
남농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남종화의 거장이자 운림산방의 3대주인 남농 허견 화백의 작품과 임진, 오당 등 5대에 걸친 작품 전시 · 조선에서 현대에 이르는 3백여 점과 고려 조선시대의 각종 도자기 200여 점 전시 	
목포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0월 개관되었으며, 박화성, 차범석, 김우진, 김현 등 목포의 4대 문학가들을 기념하여 건립 · 평생 동안 사용했던 유품들과 육필 원고 작품집 등 전시·보존 	
갯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4월 27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500호로 지정 · 입암반조(笠岩返照, 저녁노을 물든 갯바위의 풍경)라 하여 목포 팔경 중의 하나 	
목포문화 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7월에 개관되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총 7개의 전시실과 특별실 2개, 698석의 공연장 ·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남도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 	

3) 삼학도권

1930년대에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은 이렇게 노래한다.

부두의 새악씨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움,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임자
취 완연하다 애달픈 징조 …….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에 등장하여 유명세를 타게 된 삼학도는 본래 목포 동쪽 앞바다에 나란히 있던 3개의 섬이었으나 1968~1973년 간척공사로 인해 물으로 변한 뒤 삼학도라는 이름만 남고 사라져 버렸다.

삼학도는 연인이 그리워하는 혼이 솟아난 섬이라는 전설이 있다. 유달산에서 무술을 연마한 젊은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를 사랑하는 세 처녀가 상사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 처녀들의 혼이 학이 되어 유달산 주위를 날며 슬피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무사 장수는 모르고 세 마리의 학을 명중시켜 유달산 앞바다에 떨어져 죽게 했다. 그 후 학이 떨어진 자리에 세 개의 섬이 솟아나 세 처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다. 삼학도는 2004년부터 복원화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삼학도 자리에 이난영공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 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시설 등이 있어 목포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학도는 목포항구축제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삼학이란 신선이 사는 곳에 노니는 두루미를 상징한다.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라는 전설과 함께 성인과 보살의 화신으로 사람들을 착한 곳으로 인도하고 신선이 사는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의 기능을 맡는 새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표 3 삼학도권 주요 관광자원 현황 및 특징

구분	특징	사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 대한민국 제 15대 대통령이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故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각종 사료와 영상자료 전시 · 지상 2층 규모로 전시동과 컨벤션 등으로 구성	
이난영공원	· 「목포의 눈물」의 가수故 이난영(1916~1965) 여사를 기념하는 공원 ·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와 우리나라 수목장 1호 이난영 여사의 수목장	
어린이 바다과학관	·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과학적 사고와 능력을 심어 주고 바다의 호기심을 갖도록 갯벌 체험, 심해모형잠수정, 깊은 바다 재현 영상, 바다 동·식물 생태 및 먹이 모형 체험 등 아이들의 감각을 풍부하게 자극하도록 구성되었으며 '4D 영상관', '갯벌생태수조' 등이 마련되어 있음.	
목포요트 마리나	· 유달산은 낙조와 흰색의 요트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간직한 목포 요트마리나는 요트 세일링을 하기에 최고의 조건이고, 해상·육상계류장, 클럽하우스, 전시판매장 등을 갖추고 있음.	

4) 북항권

북항권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압해대교가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가면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인 목포대교와 연결되어 고하도에 이르고 신외항에 도착한다. 광주의 기아자동차 생산품이 이곳을 지나 목포 신외항에 선적되어 수출된다. 북항은 인근 안좌도, 비금도, 도초도로 출항하는 항구로 기다리는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항구주변에 늘어진 횃집과 가게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온 관광객들을 맞느라 활력이 있다. 최근에는 북항씨푸드회센터가 위치해 있어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의 관광객들이 회 맛을 보러 온다. 목포수협활어어판장에서는 싱싱한 농어, 돔, 각종 수산물의 경매가 이루어진다. 인근에는 목포노을공원이 있다. 목포 어디에서나 일몰을 즐길 수 있지만 북항의 노을공원은 압권이다. 목포해양수산청에서 2014년 6월에 조성하였다. 수변 데크와 이벤트광장, 바닥분수, 놀이터 등의 시설이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북항 주변의 친수공간이다. 북항을 따라 가면 대반동 및 목포해양대학교와 신안비치호텔 등 해안선에서 고하도를 바라보는 풍광은 절경이다.

표 4 북항권 주요 관광자원 현황 및 특징

구분	특징	사진
유달유원지	· 유달해수욕장과 대반동을 거나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높은 곳으로 해안산책로와 해변카페, 전망대, 횃집 등이 있으며, 다도해 일몰이 장관이며 밤이면 멋진 야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임.	
어민동산	· 바다와 더불어 살다간 해양도시 목포 어민들의 망혼을 위로하고, 해양을 개척해 나가는 어업인들의 기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조성됨. · 유달산 일주도로를 따라 서편으로 돌면 다도해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하며, 어민의 애환을 표현한 어민상과 김지하의 바다가 새겨진 시비가 있음.	
북항 노을공원	· 2014년 6월 26일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서 113억원을 들여 목포 북항 친수문화공간에 광장 2만7천㎡, 도로 1.1km의 공원을 조성함. · 수변 데크, 이벤트 광장, 녹지와 산책로, 바닥분수와 휴게시설(파고라, 벤치 등)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음.	

5) 도서해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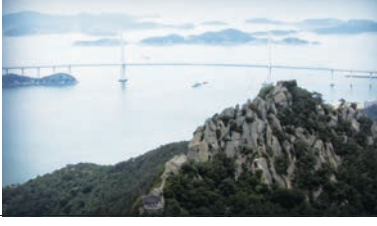
목포는 항구도시이지만 다도해를 따라 주변에 아기자기한 섬들이 펼쳐져 있다. 목포의 섬은 고하도, 달리도, 외달도, 울도 등 역사문화가 깃들여 있고 해수욕장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고하도는 현재 목포대교가 연결되면서 육지가 되었으며 신외항으로 갈 수 있다. 고하도는 목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유달산에서 조망되는 고하도 용머리는 유달산 낙조대나 일등바위의 전경이 아름다우며 밤에는 바다와 어우러진 오색 등의 찬란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달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바다와 함께 고하도가 보인다. 고하도는 목포 북항과 2012년 6월 29일 개통된 목포대교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고하도(高下島)는 목포의 높은 산인 유달산 밑에 있어 고하도라 불렸다고 하는데 고하도(孤霞島), 고화도(高和島), 보화도(寶和島), 비하도(悲霞島) 등으로도 불렸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당시에 통제사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 군량미를 보관하기 위해 시설을 갖추고 별장(別將)을 두어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유달산에 오르면 전면에 펼쳐지는 고하도가 목포 내항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방어벽처럼 길게 늘어서 있다. 마치 용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 용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산의 형상이 솟거나 낮아지기를 반복하다가 용머리 부분이 굽게 변해 풍수지리설의 용(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고하도는 바다, 숲, 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자연 친화형 힐링 섬으로 가치가 높고 역사의 흔적도 간직하고 있다. 고하도 용오름길 곳곳에서 유달산과 삼학도, 목포대교 등 목포항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호젓한 숲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다. 고하도는 우리나라 육지면(목화)의 최초발상지로 현재 조선육지면발상지 비가 세워져 있다. 또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했던 당시 이충무공이 107일간 머물렀던 역사적 유적지이기도 하다. 고하도는 이순신장군이 진지에 머무는 동안 전선, 군량미 확보로 노랑해전 승리의 밑바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육로를 통해 쉽게 건너갈 수 있으나 예전엔 바다로 둘러싸여 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목포대교가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고하도의 길게 늘어진 형상을 따라 목포 신외항으로 접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달산과 고하도 간 해상케이블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총 3.12km 길이로 해상과 육상이 연결되어 2018년경에 개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 목화단지, 해안힐링랜드 조성, 전망대 설치, 용오름 둘레숲길 정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의 고하도는 목포 관광의 핵심적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다. 목포관광이 고하도와 연결되어 해양과 내륙의 접점으로서의 서남권의 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목포의 섬 해양관광지라고 하면 외달도를 들 수 있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사량의 섬 외달도는, 청정해역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다도해의 아늑함을 더해준다. 해수욕장의 고운 모래톱, 아름다운 낙조등 경관이 아름다워 가족들과 연인들이 찾는 곳이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신나는 물놀이, 고풍스러운 한옥민박을 경험할 수 있다. 깨끗한 해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어서 가족단위나 연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곳에는 등산(산책)로 및 해안산책로를 지나 한옥민박과 해수욕장(2.5km)으로 접근하여 관광 할수 있다. 먹거리는 전복, 소라, 생선회, 전복 촌닭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서는 공동취사장, 족구장, 유흥시설, 전망대가 있다.

표 5 도서해양권 주요 관광자원 현황 및 특징

구분	특징	사진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때 이 충무공에 의해 전락지로 활용되어 왜적의 침투를 막아낸 것을 기념한 이충무공 기념비(지방유형문화재 39호)가 있음. · 1722년 충무공의 5대손인 이봉상이 건립하고 남구만이 비문을 짓고 조태구가 글을 쓴 것임. 	
고하도 용오름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승천하는 등허리와 닮았다고 붙여진 길 · 그다지 높지 않은 오름이지만 숨이 차오를 만큼 걷다 보면 목포 시가지의 조망 가능 	
외달도 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8년 개장된 해수욕장으로 깨끗한 바다, 고운 백사장과 건너편 조그마한 별섬이 인상적인 해수욕장임. · 텐트촌, 야영장, 해수욕장, 한옥민박, 마을민박, 해안산책로가 있음. 	
목포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연장 4.129km, 너비 35~40m 왕복 4차선 도로로 북향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교량 · 비상하는 학의 날개 형상으로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음. 	

3. 목포 경관 변천의 과거와 현재 활용 관광자원화

목포에는 광복 전후에 불리는 목포 8경이 있었다. 목포팔경의 유래나 기록은 조선시대 각종 지리 서나 개항 이후 『목포지』나 『목포부사』와 같은 책에서도 목포 8경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고하도 병풍암과 유달산이 소개되어 있을 정도이다. 목포지역 원로들에 따르면 목포팔경의 시조나 그림이 시민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고 목포시사(木浦詩社)에 출입하던 원로 유생(儒生)들이 만들어 단가(短歌)로 즐겨 불렀다고 한다.⁰¹⁾

1965년 발행한 『목포풍아집』의 내용에 「목포 팔경」(서병대 작)이라는 제목의 한시가 남아있다. 따라서 목포 팔경이라는 어휘가 생겨난 것은 광복을 전후한 시기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8경은 유산기암(儒山奇巖 : 유달산의 기묘한 바위), 학도청람(鶴島晴嵐 : 맑은날 삼학도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금강추월(錦江秋月 : 영산강의 달빛), 달사모종(達寺暮鍾 : 달성사의 저녁 종소리), 아산춘우(牙山春雨 : 아산에서 내리는 봄비), 고도설송(高島雪松 : 고하도의 눈 덮인 소나무), 용당귀범(龍塘歸帆 : 용머리 돌아오는 돛단배), 입암반조(笠岩返照 : 갯바위의 저녁노을)이다.

과거의 목포 8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팔경은 목포의 자연풍토의 토대아래 문화적 정서가 담겨있으며, 그 지역 토착민의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문화 생태경관을 포괄하는 경영계획 및 관광계획에 귀중한 지표이자 방향타로서 매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⁰²⁾

팔경은 향토문화와 여러 측면에서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민의 삶과 다채롭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경관의 폭과 넓이를 다층적으로 찾아내고 지역명소의 정체성 부각을 위한 다채로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관이란 대상(군)의 전체적인 바라보임이며, 그것을 계기로 형성되는 인간(집단)의 심적현상이다. 경관이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대상(경관대상)을 인간(경관주체)이 봄으로써 성립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목포 8경의 장소성과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9경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목포시는 광복 전후에 불린 목포 8경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목포 9경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목포 9경은 유달산 풍경(1경), 목포대교 일몰(2경), 갯바위(3경), 춤추는 바다분수(4경), 노적봉(5경), 목포진(6경), 삼학도 이난영공원(7경), 다도해전경(8경), 사랑의 섬 외달도(9경)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01) 최성환, 「목포 팔경에 대한 소고」, 『목포문화사랑』, 2002.

02) 김동찬·민경숙, 「충청북도 팔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2, 2003, 31쪽.

2012년에 완공된 목포대교와 빛과 공연, 프리포즈 사연소개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목포대교 일몰과 춤추는 바다분수가 선정되어 신선함을 자아내고 있다. 기존의 유달산, 갯바위, 노적봉 등은 기암괴석의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목포 이미지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랑의 섬 외달도도 해양과 섬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 있어 대표적인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포진과 삼학도 이난영 공원은 목포의 역사성과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서의 목포 이미지를 표현한 장소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목포 8경과 현재의 목포 9경은 목포를 대표하는 경관이다. 향후 해양관광의 종합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적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8경과 신 목포 9경을 핵심거점으로 하여 주변 역사문화, 자연, 사람 등이 잘 어우러져 지역성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곽행구 |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제2절 골목길

1. 골목길 보존이 필요한 이유

시간과 속도, 개발, 새로운 것, 소유에 길들여진 삶에서, 근·현대사의 모순이 응축되고 극명하게 표출된 목포의 골목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골목은 소박한 일상과 우리 이웃들의 미소와 눈물, 삶의 이야기가 새겨진 곳이다. 그곳에 우리의 아련한 추억이 빗물처럼 고여 있다.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 속에 쥘여져 있던 삶의 애환과 그 시절 기억의 조각들이 다순구미 앞바다에 얹은 햇빛처럼 조각조각 반짝인다.



그림 1 원도심 전경

골목길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 사람, 광장과 광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 골목길에서 삶의 놀이가 시작되고, 말의 잔치가 벌어지며, 같은 목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 마당과 저 마당을 이어주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시켜 주는 도심의 실핏줄이자 숨구멍 같은 곳이 바로 도시의 골목길이다. 이 골목길에 사람이 모여 살면서, 우리의 삶이 발효된다. 문화와 역사가 ‘꽃 피고 새 울고, 해 뜨고 밤 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골목길에서 목포는 시작된다. 목포는 골목길의 도시이다. 목포의 개항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목포를 대변해준다. 목포를 알려면 목포의 골목길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목포의 내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목포의 골목길’은 점차 세월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다. 점차 사람의 냄새가 사라지면서 우리네 뒷골목에 숨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원도심의 마인게터 잔등 골목, 항동시장의 보리밥 골목, 동명동 건어물시장 골목과 젓갈시장 골목, 온금동 다순구미 골목, 죽교동 조선인 마을 골목길 등 일제강점기 서민의 공간이 세월의 무게를 안고 존재하고 있다. 또 동명동 일본인 거리, 본정통 거리 등 일제강점기 일본의 역사 공간, 거미줄 같이 얹혀 있는 죽교동과 북교동 유달산 자락 골목길은 어떨까. 이 골목들도 언젠가 도시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 지금 우리 목포는 개발논리의 광풍에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무조건 바꾸려고만 한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업고 가야 한다.

가치 있는 골목은 보존 차원을 넘어 오히려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도시재개발만 이 능사가 아니다. 목포의 싹틔줄이자 숨구멍은 틔워 놓아야 한다. 보존 가치가 높은 골목은 목포의 역사를 알리는 지표다. 후손들에게는 목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고, 이태리나 프랑스의 유서 깊은 골목처럼 독특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목포의 골목길은 살아 있어야 한다. 세월의 두께가 얹혀 있는, 오거리에서 목포극장 뒤편 차 없는 거리의 떡자골목도 그러하다. 왁자하던 노랫가락 소리와 젓가락 장단, 온 골목을 진동하던 생선 굽는 냄새, 젊은이들의 해방구이자 서민들이 잠시 근심 보따리를 풀어 놓던 덕인주점, 목포집, 할매집 등이 골목길에 있어서 오거리가 존재했던 시절도 있었다. 목포만 가지고 있고, 목포를 가장 목포답게 하는 골목, 모두가 나서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골목길에게 받기만 했을 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도시의 어떤 기능을 맡아 목포를 키웠는지 그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비록 골목길을 떠나보내더라도 그들의 신상명세와 평가는 우리네 가슴 한쪽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 시절을 추억하고 쓰다듬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 목포 골목길의 유래

목포는 근대도시이다. 1897년 대한제국은 고종 칙령에 의해 목포를 개항했다. 개항을 한 목포는 인천, 부산, 원산 등에 이어 진남포, 마산 등과 함께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 거류민단이 현 목포역 인근에 매립을 통해 조성됐다. 대부분 일본인이 거주했으며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총칼로 탄압하는 기관이 이곳에 자리했다. 현재 만호동, 유달동, 경동 등에 일본식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인 거류지역은 신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외국인 거류지 외곽에 자리하게 됐다. 유달산 자락 등 공동묘지 자리에 모여 움막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

죽동, 양동, 동명동, 삼학동, 죽교동, 북교동, 남교동, 서산동, 온금동, 대성동, 용해동, 용당동, 산정동 등이 조선인 마을이다. 이곳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하수도를 비롯해 상수도, 도로, 쓰레기 집하장 등 생활기반 시설 없이 아주 열악하게 살았다. 무분별한 거주지 형성으로 해방 후 목포시가 시민들의 생활기반을 다지는 데 가장 큰 애로를 겪게 된다.

일제강점기를 걸치면서 조선인들은 돈을 모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부촌이 형성됐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부호 마을은 북교동과 남교동 등에 자취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움튼 목포 문화는 고스란히 현재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20~1930년대에는 목포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졌다. 1900년대 초기 조선인들은 유달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반면 당시 조선인들은 갯벌 등에 집을 짓고 살았다. 자연스럽게 간척과 매립이 이루어졌다. 매립은 곧 시대별 목포 도시형성의 역사가 됐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집, 공장 등 각종 시설물을 남겨놓고 쫓겨 가면서 조선인들이 자신 소유로 바꾸어갔다.

특히 조선인들은 일본인 소유의 집과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무분별한 마을을 형성했다. 동명동의 송도는 일본 신사가 있던 곳으로 대규모 공원이었으나 해방 후 조선인들이 무단으로 차지하면서 현재의 마을을 형성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쌀과 목화, 소금, 김 등의 수출항으로 국가산업의 맥을 유지했다. 일본 패망과 함께 교역이 끊어지면서 산업은 침체하게 된다. 목포는 1960~1970년대 산업화에서 배제되면서 정체된 도시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서민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골목길이다. 자신의 삶의



그림 2 서산동 골목

터전이면서 산업 역군으로 근근이 연명하면서 터전은 더욱 피폐해 갔다. 이웃과, 사람과 각종 통로의 장이면서 소통의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칙칙한 분위기는 개선할 수 없는 힘없는 식민지 국민이었다. 이곳은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배설물의 냄새, 매일 쏟아지는 작은 싸움 등은 서민의 아련 아픔을 담고 있지만 도시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됐다.

최근에 도시 재개발이란 미명하에 골목길이 사라지고 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를 넓히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곳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자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이다.

3.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과 근대건축물 보존 운동

1)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보존 시민운동

1999년 국방부가 소유하고 해군(옛 목포해역방어사령부)이 관리한 옛 동양척식주식회사(약칭 동척) 목포지점 건물이 철거 논란을 빚었다. 철거를 하려는 국방부와 보존을 통한 일제 강제 수탈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가 뜨거웠다.

결국 목포시가 국방부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목포근대역사전시관으로 활용키로 결정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남은 현재의 모습으로 보존되었다.

당시 9월 목포문화원 등 문화계에 이어 목포 YMCA, YWCA, 목포포럼 등 목포지역 8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목포시민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목포항 일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근대 일본 건축물과 유달산 일본 불상,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울돌목 등을 연계해 일본인 관광단과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에 활용하면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가 크다.”고 주장했다.

1920년 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438평의 부지에 80평 규모의 르네상스식 2층 석조 건물로 지어진 동척 목포지점은 해방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가 지난 1989년까지 해군이 사용했으며 이후 방치돼 있었다.

2)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

옛 동척 건물 보존 운동으로 시내에 산재한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보호에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단체는 근대건축물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 대책 수립을 목포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002년 목포대학교에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목포시는 2004년 1월 고 전태홍 전 시장이 신년사에서 개항기의 역사문화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달·만호·남양·무안·북교동 일원(1만3천㎡)에 사업비 338억 원을 들여 목포역사문화의 길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정비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2012년까지 3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본식 건축물 정비, 자료관 및 공원 조성, 기념비 및 표지석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사업 연기를 실시한다. 시는 2011년 2월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비 95억 원과 시비 174억 원 등 모두 269억 원의 투입을 약속한다. 시는 2014년까지 근대역사문화유산정비 등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2015~2016년, 3단계는 2017~2018년에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의 길은 원도십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려 개항역사지구, 전통문화지구, 창조역사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었다. 개항역사지구는 주로 일본인이 거주했던 여객선 터미널-(구)일본영사관에 이르는 구간으로 근대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한·일 화합의 상징공간으로 꾸밀 계획도 수립했다. 또 전통문화지구는 조선인 마을의 중심이었던 지금의 북교동, 양동 일대를 전통문화보존과 사회적 기업지원을 계획으로 활성화해 근대한옥 보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시는 밝혔다.

창조역사지구는 역사와 문화,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오거리 일대로 유달산길, 해안생태길 등을 조성해 대표적 역사체험공간으로 연결되는 관광루트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3) 목포시, 옛 죽동교회 철거 반대 운동 불구 철거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003년 초 지역에선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났다.

목포시가 옛 죽동교회를 소방도로개설과 마을 주차장 건립을 위해 매입 후 철거를 결정한 것에 대해 목포문화원과 목포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철거를 반대하면서 지역사회 논쟁이 벌어졌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옛 죽동교회가 근대건축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철거를 반대했다. 목포시 죽동 111번지의 옛 죽동교회는 석조건물에 40평 규모로 일제강점기인 1935년 세워져 일본인들이 사용했다. 해방과 함께 중앙교회가 인수해 예배당으로 사용해 오다가 1957년 죽



그림 3 불타버린 죽동교회

동교회가 매입해 50년 동안 사용했다. 1980년대 전후 목포 민주화 운동의 장소로 활용됐다. 1979년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목포지부가 유기준 목사를 비롯해 안철 등 7명이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결성식이 죽동교회에서 열렸다. 1980년엔 양지문 씨 등이 지역 청소년과 근로자들을 위한 야학 장소로 죽동교회를 활용하면서 목포 5월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산실 역할을 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방침에 역행한다며 죽동교회 철거를 반대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포시는 옛 죽동교회 철거를 강행했다. 시는 2003년 9월 29일 새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옛 죽동교회를 다음해인 2월 10일 철거해 버렸다.

4)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철거 반대 운동

2006년 말 목포시가 차 없는 거리 등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 무안동에 위치한 옛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를 매입해 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초반 지어진 첫 번째 일본식 불교사원인 당시 중앙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보존을 주장했다. 시는 중앙교회 측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건립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시는 건물을 보존기로 하고 2007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 시는 2008년 10월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복원 및 정비공사 착공에 들어가 2009년 8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현재 오거리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목포의 첫 불교사원으로 정식명칭은 진종 대곡파 동본원사이다.

4. 목포시 도시재개발 정책 전환 사라져 간 골목길

2004년 민선 3기 전태홍 시장 시절 수립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목포시의 도시개발계획이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5년 4월 30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건설회사 출신인 정종득 시장은 하당과 남악신도심 조성으로 날로 쇠락하는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도심 재개발방식을 채택한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방치되던 목원동과 만호동, 유달동, 북교동, 죽교동, 대성동, 양동 등에 소방도로와 대규모 마을 주차장, 공동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게 된다.

2006년 10월 시는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위한 구도심 재개발지구를 발표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원도심 지역에 남아 있던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훼손되기 시작했다. 시는 중앙

공설시장에 자리에 31층 트윈스타 주·상·관 복합아파트를 건립했다. 대성동 피난민촌을 철거하고 1,391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원도심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되는 소방도로 등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들이 제대로 된 발굴 조사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도심 개발의 그늘에 싸여 100여 년의 세월의 터계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던 골목길은 재개발의 기대감으로 차츰 추억의 그 빛깔을 잃어 갔다.

5. 지역사회 사라져 가는 골목길 보존 운동

1) 목포문화원 골목길 탐방가 기록 작업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의 명목으로 골목길과 근대 건축물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포문화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라져가는 골목길의 추억을 기록하는 데 주력했다.

목포문화원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원도심의 골목길을 탐방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사라져가는 골목길과 계승 발전시킬 골목길을 선정해 지역 내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탐방하고 기록했다. 골목길 탐방에는 근대역사해설가 박신규와 향토사학자 김정섭, 목포문화원 조상현 사무국장, 김형만 한학자, 정정연 목포 문화원 이사, 유봉균 목포항만물류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그림 4 골목길 탐방

(1) 죽동 남농 옛집에서 마인게터까지

1910년대 형성된 조선인 마을이다. 유달산 노적봉 유달 슈퍼에서 일본인 부호의 집인 '송쟁이 담', 남농허건의 옛 집터, 쌍샘거리, 마인게터, 목포권번, 죽동교회 터가 있다. 이곳은 개항장 목포에서 생업을 찾아 몰려든 조선인들이 공동묘지 자리에 집을 지으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그야말로 열악한 생활환경이었다. 움막 수준의 집을 지으면서 부족한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분쟁에 휩싸였다. 유달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조선인들의 부호 집이 밀집해 있다.

(2) 북교동 반야사에서 불종대 거리

일제강점기 건립된 유달산 기슭의 반야사에서 소영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란 작품의 무대가 된 갯등, 목포 최초 근대식 아파트 유달 아파트, 큰샘거리, 한국 최초 극작가 김우진 생가 터인 현 북교동 성당, 일제강점기 화재감시 망루인 불종대까지의 거리이다.

목포의 대표적인 사학재단인 덕인재단을 세운 이복주씨가 살던 일본식 집과 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대나무길, 큰샘거리, 갯등 등은 서민의 기록물이다. 김우진의 삶과 문학이 이곳에 꽃피웠던 곳이다. 불종대 거리는 유달산 기슭 서민들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난장을 이루어 낸 곳이다.

(3) 올외나루 고갯길의 온금동 서산동

이곳은 항구 목포의 옛 갯내음이 남아 있는 곳이다. 유달산 이훈동 일본식 정원에서 출발해 삼학사, 옛 목포제일여고 자리, 제2수원지, 장사바위, 샘터,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올외나루 고갯길(아리랑 고개), 유달산 산신제 등이 남아 있다. 온금동은 다순구미이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이란 뜻이다. 일본인 거류지역과 도로를 경계로 나뉘져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항구 노동자와 어부들이 거주한 곳이다. 제2수원지는 일본이 거류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하던 곳이다. 식수를 구하기 힘든 목포에서 이곳은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4) 개항도시 목포의 빛과 그림자 서산·금화동

도시의 발전과 음습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금화동 유곽 터인 사쿠라마치에서 시작해 러시아산, 히타리(일본말로 ‘잡아당긴다’란 뜻)윤락촌 골목 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쌀과 면화, 소금, 김 등을 수탈당하면서 도시 빈민 노동자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는다. 노동력과 봉건적 사회적 풍조로 조선인 여성들은 윤락촌에서 몸을 팔아야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1930년대 목포에서 윤락녀는 42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조선인 윤락녀는 302명이었다. 그 대표적인 윤락촌이 사쿠라마치이다. 당시 일본식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히타리 골목은 하급 윤락촌으로 1950년대 현재 항도시장 자리에 형성됐다. 이후 윤락촌 정비 방침에 따라 삼학도 옐로우 하우스로 집단이주됐다가 사라졌다.

(5) 사라진 역사 목포진의 유달·만호동

일본의 조선 침탈과 목포 시원(始原) 역사의 소멸이 함께 숨 쉬는 곳이다. 옛 목포경찰서 자리(현재 초원호텔)에서 출발해 옛 일본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조선은행 건물, 일본인이 건립한 절 약산사, 목포진, 선창 등이 있다.

개항을 맞은 목포에는 부를 쫓아 조선으로 몰려드는 일본인들로 북적거렸다. 그들이 들어와 산 곳이

바로 외국인 거류민지역인 유달동이다. 이곳은 대한제국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일본식 신도시로 형성됐다. 일본인들은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관공서를 설치했다. 유달동 신도시에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경찰서, 조선은행 등이 들어섰다. 현재 이곳에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리고 인근에 목포진이 있다. 조선 세종 때부터 건립돼 연산군까지 축조된 목포진의 옛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만호진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큰 비석만 남아 있다.

(6) 근대 목포의 용트림 양동·남교동

일제강점기 조선인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양동 육거리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생가터, 남교동 목포양주주식회사(옛 삼학소주) 터, 조선인이 운영한 인력거 점 등이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인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룬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만들어진 곳이다. 이와 함께 소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아랭이'가 서민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곳이다. 남교동은 1920년대까지 호수였던 곳이었으나 매립돼 상가 지역으로 바뀌었다.

(7) '청년운동의 모태 청년회관'

목포의 근대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청년회관을 비롯해 남교동 경성고무공장, 노동운동의 집회장소로 활용된 희성유치원, 4·3만세운동을 이끈 정명여고 100년관, 조선인 첫 병원자리, 신안군청사로 활용되었던 목포부 건물 등이 남아 있다. 목포청년회관은 목포의 근대 청년문화를 이끈 주체가 됐다. 목포의 신간회 주축이 됐으며 지역 부호(富豪) 조정 김성규 무안감리의 아들인 김우진, 김철진의 활동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산파 문화의 탄생지이기도하다.

(8) 조선인 추억 담긴 오거리의 무안동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문화와 조선인의 문화의 혼용의 지역이다. 무안감리서 건물을 비롯해 목포 첫 음식점 봉춘관 자리, 목포 첫 다방이 있던 자리, 목포극장, 평화관 자리, 미군정 초대 목포시장인 최섭의 옛 집, 동본원사 목포 별원 건물, 고은 시인과 법정 스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정혜원 등이 있는 곳이다.

(9) 일본 신사가 있던 동명동 송도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神道)의 신(神)을 모신 신사(神社)가 있던 곳이다. 송도를 오르는 77계단이 남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 인근은 일본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해방 후 치안이 불안한 틈을 타고 서민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무분별하게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방공호가 남아 있다. 젓갈골목 등은 당시 번성한 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0) 천주교 신안 못자리 산정동 성당

옛 목포 KBS 자리에서 산정동 성당, 목포 천주교 선교 100주년 한국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성당야학 자리, 지역 독립운동의 산실인 연동교회, 호남선 연동 육거리 건널목, 용당동 평화촌이 있는 곳이다. 전국 도시 인천, 부산, 원산 등 보다 늦게 개항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목포에서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정약용, 정약전의 유배와 관련이 깊다는 추론이다. 용당동 평화촌은 해방 후 징용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국내로 귀국하면서 집단 거주지가 조성됐다.

(11) 연동 원뚝길의 연동·용당동

목포역에서 진섬까지 4km 길이로 만들어진 뚝이다. 뚝으로 바닷물을 막아 거주지로 만들었다. 물이 적은 목포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공간이 필요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관청에서 매립을 하지 못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직접 바닷길을 막아 생활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연동 원뚝이다. 현재는 집들이 들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2) 목포교육지원청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은 2017년부터 ‘우리역사바로알기’ 목포 역사 탐방 행사를 지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목포시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삼학도 근린공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유달산 노적봉, 목포근대역사관, 목포진을 비롯하여 최근 인문도시로 새롭게 색을 입힌 서산동 시화 골목길, 목원동 골목길을 탐방했다.

3) 목포 사서교사 연구모임과 목포 갯돌 등 골목길 탐방 활동

목포문화원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목포 원도심 골목길을 보존하고 기록해야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일면서 몇몇 단체들이 목포 역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했다. 2009년 목포여자고등학교, 문태고등학교 등 지역 6개 사서 교사가 중심돼 만들어진 목포사서교사 모임은 ‘두근두근 목포 문학작품 골목길 탐사’ 프로그램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갯돌은 사라져가는 목포의 골목길에 대해 시민과 함께 걷는 탐방 프로그램을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마당극 페스티벌 개최하는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4)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일환 골목길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

목포시는 목원동 구름다리 일원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우봉 이매방 선생의 승무를 벽화로 조성하는 등 골목길 관광루트를 조성했다. 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목원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시는 목원동의 주요거점 19개소를 연결하는 골목길 관광루트인 ‘옥단이길’을 조성했다.

시는 옥단이길(연장 4.6km, 소요시간 2~3시간)과 함께 유달산으로 가는 길 탐방 3개코스(노적봉·구름다리·김우진 거리),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탐방(만인계터거리·자드락 골목길, 남진생가 등) 등을 관광객이 찾는 길로 꾸몄다.

5) 목포대 인문도시 목포 사업으로 서산동에 문화예술을 결합한 골목길 조성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인문도시사업단은 서산동에 ‘서산동 시화 골목’을 조성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시인 15명과 화가 9명이 서산동과 온금동을 주제로 30점의 시화를 목판화로 제작해 골목길에 설치했다. 이어 2016년에는 주민과 화가들이 참여해 ‘문화예술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시화길을 조성했다.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4명의 화가들은 서산동에 어울리는 바다 관련 바다낚시 풍경, 배 그림 등의 소재를 다양한 기법의 벽화 작품으로 제작해 골목분위기를 배가시켰다.

류용철 | 목포시민신문 대표이사

제3절 향도의 축제와 문화행사

1. 목포예술제를 중심으로 한 향도의 축제

목포시의 축제 및 문화행사는 1958년에 목포문화협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목포문화협회가 결성된 다음 해인 1959년 11월 1일 제1회 목포예술제가 처음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전, 미술협회 회원전, 음악콩쿨대회, 학생극장 콩쿨, 무용콩쿨대회, 어린이글짓기대회, 자작시 낭송회, 고등학생 토론대회, 종합발표회 및 시상식 등 다양한 경연 및 전시행사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향토예술제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족정서를 되찾기 위하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연달아 개최되었는데 목포시의 경우 축제의 시발점이자 축제로 명명할 수 있는 행사라 할 수 있겠다.

제2회 목포예술제는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 개최되었고, 제3회 목포예술제는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 개최되었다. 제4회 목포예술제는 196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 개최하였고, 이후 1963년에는 제5회 목포예술제와 함께 제1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목포 시민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을 마련하였다. 1987년에는 제27회 목포예술제를 목포시민의 날 행사 및 전국체전행사와 결합하여 개최하는 등 타 행사들과 연계하였다. 이처럼 축제 및 문화행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목포예술제는 195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꾸준히 개최되어 오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표 1 목포예술제 개최 기간(1959~1978)

행사명	기간
제1회 목포예술제	1959. 11. 01.~11. 12. / 12일간
제2회 목포예술제	1960. 12. 01.~12. 11. / 11일간
제3회 목포예술제	1961. 11. 18.~11. 30. / 13일간
제4회 목포예술제	1962. 11. 13.~11. 23. / 11일간
제5회 목포예술제 (제1회 목포시민의 날과 결합)	1963. 10. 01.~10. 10. / 10일간
제6회 목포예술제	1964. 10. 26.~11. 03. / 9일간
제7회 목포예술제	1965. 11. 05.~11. 15. / 11일간
제8회 목포예술제	1966. 10. 01.~10. 15. / 15일간
제9회 목포예술제	1967. 11. 06.~11. 13. / 8일간
제10회 목포예술제	1968. 10. 09.~10. 15. / 7일간
제11회 목포예술제	1969. 11. 15.~11. 27. / 13일간
제12회 목포예술제	1970. 09. 30.~10. 10. / 11일간
제13회 목포예술제	1971. 09. 30.~10. 15. / 16일간
제14회 목포예술제	1972. 09. 30.~10. 10. / 11일간

행사명	기간
제15회 목포예술제	1973. 10. 05.~10. 15. / 11일간
제16회 목포예술제	1974. 11. 01.~11. 09. / 9일간
제17회 목포예술제	1975. 10. 10.~10. 20. / 11일간
제18회 목포예술제	1976. 10. 01.~10. 15. / 15일간
제19회 목포예술제	1978. 10. 01.~10. 14. / 14일간

표 2 목포예술제 개최 기간(1980~2015)

행사명	기간
제20회 목포예술제	1980. 11. 01.~11. 15. / 15일간
제21회 목포예술제	1981. 10. 16.~10. 31. / 16일간
제22회 목포예술제	1982. 10. 16.~10. 31. / 16일간
제23회 목포예술제	1983. 10. 01.~10. 23. / 23일간
제24회 목포예술제	1984. 10. 01.~10. 12. / 12일간
제25회 목포예술제	1985. 10. 01.~10. 21. / 21일간
제26회 목포예술제	1986. 10. 01.~10. 12. / 12일간
제27회 목포예술제 (목포시민의 날과 전국체전행사와 결합)	1987. 09. 30.~11. 25. / 26일간
제28회 목포예술제	1988. 10. 01.~10. 22. / 22일간
제29회 목포예술제	1989. 09. 28.~10. 15. / 18일간
제30회 목포예술제	1990. 09. 28.~10. 27. / 30일간
제31회 목포예술제	1991. 09. 27.~11. 01. / 35일간
제32회 목포예술제	1992. 10. 01.~10. 31. / 31일간
제33회 목포예술제	1993. 10. 01.~10. 31. / 31일간
제34회 목포예술제	1994. 10. 01.~10. 31. / 31일간
제35회 목포예술제	1995. 10. 01.~10. 31. / 31일간
제36회 목포예술제	1996. 10. 01.~10. 30. / 30일간
제37회 목포예술제	1997. 10. 01.~12. 30. / 91일간
제38회 목포예술제	1998. 09. 30.~10. 31. / 32일간
제39회 목포예술제	1999. 09. 29.~10. 23. / 25일간
제40회 목포예술제	2000. 09. 24.~10. 28. / 35일간
제41회 목포예술제	2001. 10. 09.~10. 28. / 20일간
제42회 목포예술제	2002. 09. 30.~10. 20. / 21일간
제43회 목포예술제	2003. 09. 29.~10. 18. / 20일간
제44회 목포예술제	2004. 10. 01.~10. 22. / 22일간
제45회 목포예술제	2005. 09. 30.~10. 22. / 23일간
제46회 목포예술제	2006. 09. 28.~10. 28. / 31일간
제47회 목포예술제	2007. 10. 05.~10. 28. / 24일간

행사명	기간
제48회 목포예술제	2008. 09. 26.~10. 26. / 31일간
제49회 목포예술제	2009. 10. 09.~10. 31. / 23일간
제50회 목포예술제	2010. 10. 01.~10. 30. / 30일간
제51회 목포예술제	2011. 10. 01.~10. 31. / 31일간
제52회 목포예술제	2012. 10. 05.~10. 31. / 27일간
제53회 목포예술제	2013. 10. 02.~10. 31. / 30일간
제54회 목포예술제	2014. 10. 01.~10. 31. / 31일간
제55회 목포예술제	2015. 10. 01.~10. 31. / 31일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 자료와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함.

그림 1 목포예술제 현장 모습(1959~1964)



제1회 목포예술제(1959)



제2회 목포예술제(1960)



제3회 목포예술제(1961)



제4회 목포예술제(1962)



제5회 목포예술제(1963)



제6회 목포예술제(1964)

자료: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총소사」 제1집, 1982.

그림 2 목포예술제 현장 모습(1965~1975)



제7회 목포예술제(1965)



제11회 목포예술제(1969)



제12회 목포예술제(1970)



제13회 목포예술제(1971)



제16회 목포예술제(1974)



제17회 목포예술제(1975)

자료: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총소사』 제1집, 1982.

그림 3 목포예술제 현장 모습(1976~1982)



제18회 목포예술제(1976)



제19회 목포예술제(1978)



제21회 목포예술제 예술인의 밤(1981)



제22회 목포예술제 백일장대회(1982)



제22회 목포예술제 회원음악발표회(1982)



제22회 목포예술제 사진협회전(1982)

자료: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총소사』 제1집, 1982.

2. 문화관광 축제를 중심으로 한 향도의 축제

목포시는 본격적으로 1996년부터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와 목포권 도자기 축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관광형 축제들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는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에 희망의 봄소식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꽃을 주제로 한 축제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응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민한마당 행사였으며 1996년 제1회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목포권 도자기 축제는 목포의 생활자기 및 전통자기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목포

시의 축제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목포바다 은빛갈치축제, 로테오거리 페스티벌, 목포 선상 해맞이 축제, 북항회 축제, 동명동 수산물축제, 동네 축제(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는 목포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목포항구축제(구 목포해양문화축제)와 꽃피는 유달산 축제(구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목포 생활도자전(구 목포권 도자기축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등이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까지 개최되어오고 있는 이들 축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꽃피는 유달산축제⁰¹⁾

(1) 유래 및 특성

꽃피는 유달산 축제는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에 피는 개나리꽃을 주제로 하여 기존 개최되었던 시민한마당행사를 1996년에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로 명명하여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 하에 처음 개최되었다. 처음 개최되었을 당시 ‘꽃길 걷기’, ‘남도가락한마당’, ‘가면무도회’ 등의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였다. 꽃피는 유달산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인 유달산은 목포를 상징하는 해발 228m의 산으로 기세가 웅장하고 갖가지 기암괴석이 자리잡고 있으며, 상봉인 일등바위에 오르면 바다와 섬들이 어우러져 있어 축제 기간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목포시의 명소이다.

개나리, 벚꽃, 목련 등 다채로운 봄꽃들이 만개하여 먼발치에서 보면 유달산은 가히 노란 비단수를 놓은 듯 하며, 벚나무의 분홍빛 꽃비와 함께 숨 막힐 듯한 화려한 경관을 연출한다. 이렇듯 자연의 경이와 함께 펼쳐진 봄꽃의 화려함과 남도의 명산 유달산을 배경으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자연스럽게 신명이 넘쳐흐르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국토의 시발점이며 종착지인 목포에서 남녘의 화신(花信)이 유달산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먼저 봄꽃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자연과 사람, 예술이 하나 되는 축제로 거듭났다.⁰²⁾

1996~1999년 매년 3월 또는 4월에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2000년에는 기존 축제 장소인 유달산과 시내 일원에서 3~4월에 개최되었다. 2000년까지의 주요 행사는 ‘퍼레이드’, ‘길놀이 행사’ 등 ‘전야제와 축제 선포식’, ‘강강술래’, ‘꽃길걷기’ 등 메인행사, ‘백일장’, ‘봄나물 캐기’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2000년에는 처음으로 기원의 날, 희망의 날, 화합의 날이라는 부제를 설정해 축제 전반에 걸쳐 주제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기획의 날에서는 ‘4·8 독립만세운동의 재

01) 1996년 처음 개최되었던 축제명은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였으나, 꽃피는 유달산 축제로 명명하여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음.

02) 목포문화관광(<http://tour.mokpo.go.kr>).

현'과 '길놀이 한마당' 등으로 구성되었고, 희망의 날에서는 '복춤 공연', 가야금 병창과 산조, 남도민요 등으로 연행된 '남도가락한마당', '노적봉 강강술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화합의 날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화합하는 열린 무대를 마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06년에는 목포해양문화축제와 동시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목포북항회축제, 2008년에는 목포도자기축제, 목포북항회축제와 동시 개최하는 등, 3년간 타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2011년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축제를 취소하였으나, 유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일부 기간 동안은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꽃피는유달산축제는 1996년~2014년 2~5일 간 개최되어 오다가 2015년에는 개최일을 9일로 확대하고 의식행사는 간소화하였으며 관광객 유도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였다. 특히 2015년 프로그램은 크게 축제 서막, 특별 기획 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 체험 참여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축하행사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표 3 꽃피는 유달산 축제 개요(1996~2015)

연도	개최 기간	장소	주최/주관
1996	4월 경	유달산 일원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추진위원회
1997	04.05.(토)~04.06.(일)	"	"
1998	3월 경	"	"
1999	04.03.(토)~04.04.(일)	"	"
2000	03.31.(수)~04.02.(금)	"	"
2001	04.06.(금)~04.08.(일)	"	"
2002	04.04.(목)~04.07.(일)	"	"
2003	04.04.(금)~04.06.(일)	유달산, 문화예술회관 등	"
2004	04.01.(목)~04.05.(월)	유달산, 갯바위, 시내 일원	유달산꽃축제 추진위원회
2005	04.02.(토)~04.05.(화)	"	"
2006	04.08.(토)~04.16.(일)	2006 목포항구축제와 동시 개최	
2007	03.30.(금)~04.01.(일)	2007 목포북항회축제와 동시 개최	
2008	04.11.(금)~04.13.(일)	2008 목포도자기축제, 2008 북항회축제와 동시 개최	
2009	04.03.(금)~04.05.(일)	유달산, 로데오광장 일원	목포시/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2010	04.02.(금)~04.04.(일)	유달산 일원	"
2011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미개최	
2012	04.07.(토)~04.08.(일)	유달산 일원	목포시/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목포MBC
2013	04.06.(토)~04.07.(일)	"	목포시/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2014	04.05.(토)~04.06.(일)	"	"
2015	04.04.(토)~04.12.(일)	"	"

자료: 목포시 제공.

이밖에 꽃피는유달산꽃축제의 개최 장소는 주 행사장이 유달산 일원이었으며, 개최연도에 따라 갯바위, 문화예술회관, 시내, 로테오광장 등 장소의 차이가 있었다. 2006~2008년은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타 축제와 동시 개최하였고, 2011년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최되지 않았다.



2008 유달산봄맞이축제

그림 4 꽃피는 유달산축제 포스터(2008~2015)



2009 유달산꽃축제



2013 목포유달산꽃축제



2015 꽃피는 유달산축제

자료: 목포시 제공.

(2) 개최 현황 및 평가

가. 1996~2002년

1996~2000년은 퍼레이드, 길놀이 행사, 꽃길 걷기 등 대부분 동일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가 2001년부터는 공식행사를 포함한 30종의 행사가 주제별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민속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자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진일보한 지역축제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기원의 날 전야제 행사에서의 4·8 독립만세운동 재현극과 부대행사에서의 역사문화의 길 걷기 프로그램은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로 국민의 정서가

암울한 시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수를 비례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였고, 음식의 맛과 가격,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축제 상품이 결여되었고, 다수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 특히 축제를 통해 목포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축제를 통한 연계관광이 결여된 점, 축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⁰³⁾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축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의 주제인 유달산과 개나리꽃을 확대 식재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서의 입지를 제고하고, 유달산과 개나리꽃 주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2001년 제6회 유달산개나리꽃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목포에 대한 연상이미지에서 축제 참가 전·후를 불문하고 유달산을,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민속공연 등을 꼽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축제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개최 장소가 달성공원 주무대를 포함한 유달산 일원, 갯바위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축제 분위기를 목포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차 안다니는 거리 일대와 (구)남교동 공설시장에서 유달산 입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고, 축제에 참여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목포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해설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유달장수와 삼학선녀의 애절한 사랑에 부합되는 활쏘기경연대회나 유달산 일주도로 단축 마라톤 경주 등 주제에 부합되는 경연행사를 기획하여야 하고 전국적인 홍보가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목포나 광주·전남 이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여행사와의 연계해 패키지가 투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연행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⁰⁴⁾

이후 2002년에는 유달산개나리꽃축제가 4월 4일~4월 7일 4일간 개최되었고,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퍼레이드, 길놀이 행사, 축제 선포식, 강강술래, 꽃길 걷기 등 2001년과 유사하게 기획되었다.⁰⁵⁾ 특히 2002년 제7회 유달산개나리꽃축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목포PC문화협회를 통한 인터넷 기사사이트 접속 홍보,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축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갯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유달산 주행사장간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

03) 『제6회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연구결과 보고서』, 2001.

04) 같은 책.

05) 목포시, 『시정백서』, 2003.

써 관광객들에게 접근 편의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역을 제외한 원거리 거주 방문객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타 지역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고, 이들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행사진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대책 마련 미흡, 교통 혼잡, 화장실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⁰⁶⁾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연행되었던 2002년 제7회 유달산개나리꽃축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축제 현장과 직결되어 있어 접근성 향상으로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2001년 축제에 비하여 외지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져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숙박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⁰⁷⁾

나. 2003~2009년

2003년에는 2002년의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민속주 한 잔 드세요’, ‘꽃나무 나눠주기’, ‘디지털가족 사진 찍어주기’, ‘전통 혼례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04년에는 ‘웰컴목포 축제한마당’, ‘꽃노래 메들리 교실’, ‘축제선포식’ 등 본행사와 ‘열린미술마당’, ‘도자기 꽃병 만들기’, ‘미항거리 축제’, ‘갯바위 이벤트 체험마당’ 등 부대행사, ‘역사의 거리 공연 여행’, ‘고속전철 승객 꽃길여행’ 등 특별기획행사로 구성되었다.

2005년에는 ‘길놀이 한마당’, ‘군악대 축하연주’, ‘노적봉 강강술래’ 등 개막·공연행사 36종, ‘전통문화 체험행사’, ‘도자기타일벽화’ 등 체험행사 13종, ‘특산물코너운영’, ‘해상함정 승선체험’ 등 부대행사 9종, ‘목포역사의 거리 답사기행’ 등 특별행사 4종이 운영되었다. 2006년의 경우 목포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목포해양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되었고, 2007년에는 목포북항화축제, 2008년에는 목포도자기축제, 목포북항화축제와 동시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2008년 유달산봄맞이축제는 그동안 폐지되었던 도자기축제와 병행하여 목포를 방문한 타 시·도 관광객들에게 주제가 다른 각각의 축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달산봄맞이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소재인 유달산이 갖는 상징성과 봄 및 목포의 문화를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 재구성(문화와 봄을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개최장소의 확대, 즉 주무대 인근 도로변에 집중되어있는 행사부스를 해양대학교 인근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연행에 이르기

06) 『제7회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평가보고서』, 2002.

07) 같은 책.

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기획을 수립토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⁰⁸⁾

그림 5 2008 목포유달산봄맞이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유달산 꽃길 걷기

노적봉 강강술래

이밖에 2008년 목포유달산봄맞이축제는 공연 14종, 체험·부대 23종, 기타 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유달산 꽃길 걷기’, ‘노적봉 강강술래’, ‘군악대 공연’, ‘4·8만세 운동 재현’, ‘풍물놀이’ 등 공연 프로그램과 ‘시민의 종 타종체험’, ‘꽃향기 천연비누 만들기’, ‘유달장수 활쏘기 체험’, ‘천자총통 발포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유달산꽃축제로 명명된 2009년에는 로테오 광장과 유달산 일원에서 ‘비보이 댄스 공연’, ‘소년·소녀 합창공연’, ‘유달산 가족사랑 걷기체험’, ‘해군3함대 군악대 공연’, ‘봄의 여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체험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가 이루어졌고, 유달산꽃축제가 목포시민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러나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집중되는 유달산 일주도로에 행사 차량이 통행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목포시 지역주민들은 축제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행태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유달산 일주도로에 차량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유달산꽃축제의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축제에 대한 컨셉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강릉 단오제나 춘천 국제마음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컨셉 자체가 축제로 기획 가능하며, 지역문화를 중심

08) 『2008 목포 유달산 봄맞이축제 및 도자기 축제 평가보고서』, 2008.

으로 발전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홍보 및 관람객 유치의 참신성이다. 가까운 예로 영암왕인 문화축제를 들 수 있는데 왕인박사유적지 내의 벚꽃 군락지는 매년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높은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매력속성이 갖춘 축제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가능하다. 셋째, 관광객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축제는 부산국제 영화제라 할 수 있다. 영화제는 축제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영화제 역시 축제의 한 분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민을 위한 축제이다. 축제는 본질적 의미는 바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아도 지역민들만의 축제개최를 통하여 활력소를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성공적인 축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다. 도심 속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공연행사 및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이 있는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이와 같은 축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부각하는 축제이다. 지역의 특산품이나 인물, 관광지를 이용하여 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이다. 금산 인삼축제 및 강진청자축제(구 강진청자문화제)와 같은 축제들이 지역특성을 이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축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을 방문하고 제각각의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⁹⁹⁾

그림 6 2009 목포유달산봄맞이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4·8만세 운동 재현

축제 기간 유달산 일주도로 모습

다. 2010~2015년

2010년 유달산꽃축제는 희망나눔, 봄꽃으로 초대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를 위

99) 『2009 목포 유달산 꽃축제 평가보고서』, 2009.

하여 유달산 꽃장식 전시회를 확대 운영하고 유달산 압화 경연대회를 신규 개최하여 참여형 축제로 발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브로드웨이 재즈댄스 공연’,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공연마당, ‘사랑의 우체통’, ‘백호 탈 만들기 체험’ 등 체험·전시마당, 부대행사, 특별기획행사로 구성되었다.¹⁰⁾ 또한 2011년의 경우 불규칙한 날씨로 인하여 2010년도 개최일자(4월 2일~4월 4일)와 비교하여 1주일가량 늦은 시기(4월 9일~4월 10일)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제 개최를 취소하였다.

이밖에 2012년 유달산꽃축제는 유달산 바로알기 체험을 통한 목포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달산의 봄 경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¹¹⁾ 2013년 유달산꽃축제는 2012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선 모형 천자총통 발포로 축제를 시작하여 꽃 축제와 어울리는 붓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화려한 개막을 선포하였으며, 유달산 꽃길 걷기 프로그램은 걷기 구간별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코스를 단일화하였으며 다양한 복식 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달산 일주도로 주요지점에 악기 연주 및 공연팀을 배치하여 길거리 공연을 운영하였고, 관광객들의 먹거리 편의를 위하여 향토음식부스 설치 장소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였다.¹²⁾

2014년 목포 유달산꽃축제는 꽃길 열기 선언 퍼포먼스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고, 탐방객들을 사전에 모집하여 운영한 유달산 둘레길 트레킹을 운영하였다. 특히 ‘석고마임’, ‘봄꽃 요정 카니발’ 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 등 길거리 문화예술공연을 확대 운영하였고, ‘나는 목포 가수다’, ‘슈퍼스타M’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대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¹³⁾

2015년에는 꽃피는유달산축제로 축제명을 변경하였는데, 2014년도 보다 축제 예산이 절감되었고, 축제 기간은 기존 2일에서 9일로 변경되어 축제를 개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의식행사를 간소화하였으며, 관광객 유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축제 추진 유형을 단기 축제 형태에서 봄나들이 주간 형태로 변경하여 관광객들이 꽃을 관람하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¹⁴⁾

특히 2015년 꽃피는유달산축제는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되어 차량 통제 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탄력적으로 차량을 통제한 점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꽃피는유달산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연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체험 및 관람형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10) 『2010 유달산꽃축제 추진계획』, 2010.

11) 『2012 유달산꽃축제 세부추진계획』, 2012.

12) 『2013 유달산꽃축제 세부추진계획』, 2013.

13) 『2014 목포 유달산꽃축제 추진계획』, 2014.

14) 『2015 꽃피는 유달산 축제 추진계획』, 2015.

표 4 2015 꽃피는 유달산 축제 프로그램 구성표

구분	내용
축제서막	· 4·8만세운동 재현행사&축제 선포 · 화합의 강강술래/해군 3함대 군악대 공연
특별기획 프로그램	· 봄소식 백일장 대회 · 꽃그림 사생대회 · 관광 해설사가 들려주는 유달산 이야기 투어 · 유달산 사랑 둘레길 탐방&희망의 꽃길 걷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 시립예술단체 공연(합창단/무용단/국악원/오케스트라) · 제3회명인명창국악향연(남도전통예술진흥회목포지부) · 우리민족아리랑(평화통일예술단)
체험참여 프로그램	· 다양한 꽃장식 포토존 운영 · 유달산 체험 마당 ~시민의 종 타종 체험, 천자총통 발포 체험 · 꽃나라 체험존 운영 - 꽃씨·요목 나눠주기 - 페이스 페인팅&네일 체험 - 희망 바람개비 만들기 - 기업은행 아이사랑통장만들기 - 찾아가는 건강홍보관 - 의료지원/안내지원 등
축하행사 등	· '나는 목포 가수다' 가요무대(목포연예인협회) · 봄놀이 축하쇼(MBC) · 목포 항구 음악회(KBC)
기타 프로그램	· 한국철도공사 산악연맹 단체 관광객 팸투어 · 인터넷 여행 파워 블로거 팸투어

자료: 목포시 제공.

2) 목포생활도사전¹⁵⁾

(1) 유래 및 특성

목포 생활도사전은 목포의 생활자기 및 전통자기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꽃피는 유달산 축제 개최연도와 동일한 1996년에 '목포권도자기축제'라는 축제명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서남권은 역사적으로 도자 문화가 발달하여 왔으며, 그 중 목포는 서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로써 도자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목포권 도자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1년 기준 서남권 도자 관련업체 100여 개, 종사원 2,000여 명이 있었으며, 도자기가 목포시 공산품 수출액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목포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50여개 산업도자업체가 밀집되어 있었고, 노동집약산업으로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어 도자 관련 대학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15) 1996년 처음 개최되었던 축제명은 '목포도자기축제'였으나, '목포생활도사전'으로 명명하여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음.

목포생활도자전은 1996~2003년 주로 9~10월에 개최되어 왔다. 특히 5회째인 2000년도에는 기존 축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목포세계도예프레엑스포'로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도예품을 선보였다. 이 시기에는 목포세계도예프레엑스포추진위원회를 임시 설립하여 축제를 주관토록 하였으며, 이후 2004~2007년은 개최하지 않다가 이후 2008년부터는 4~5월에 축제를 개최하였다. 축제 개최 장소는 주로 갯바위 문화예술회관이나 평화광장으로 공연 행사보다는 체험과 전시, 판매 위주로 운영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008년에 재개최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8유달산봄맞이축제와 동시 개최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데 성공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서남권도자기협회¹⁶⁾가 주관하여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표 5 목포 생활도자전 개요(1996~2015년)

연도	개최 기간	장소	주최/주관
1996	10.15.(화)~10.20.(일)	목포시 하당 신도심	목포시
1997	09.30.(화)~10.05.(일)	"	"
1998	09.24.(목)~09.28.(월)	갯바위 문화예술회관	"
1999	09.15.(수)~09.19.(일)	"	"
2000	09.23.(토)~10.03.(화)	"	목포시/목포 세계도예프레엑스포추진위원회
2001	09.22.(토)~09.26.(수)	목포 갯바위 문화의거리	목포시
2002	09.06.(금)~09.10.(화)	"	목포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2003	10.16.(목)~10.20.(월)	"	"
2004		개최되지 않음	
2005		"	
2006		"	
2007		"	
2008	04.11.(금)~04.13.(일)	2008유달산봄맞이축제, 2008북항화축제와 동시 개최	
2009	05.02.(토)~05.10.(일)	목포시 평화광장 일원	목포시/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목포권도자기협회
2010	05.01.(토)~05.05.(수)	"	목포시/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사)서남권도자기협회
2011	05.05.(목)~05.10.(화)	"	"
2012	05.03.(목)~05.06.(일)	"	"
2013	05.01.(수)~05.05.(일)	"	"
2014	10.24.(금)~10.28.(화)	"	"
2015	05.01.(금)~05.05.(화)	"	"

자료: 목포시 제공.

16) 2009년에는 목포권도자기협회였으나, 2010년에 (사)서남권도자기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림 7 목포생활도자전 포스터
(2008, 2013~2015)



2008 목포도자기축제



2013 목포생활도자전



2014 목포생활도자전



2015 목포생활도자전

자료: 목포시 제공.

(2) 개최 현황 및 평가

가. 1996~2003년

1996년에 처음 개최된 목포권도자기축제(현 목포생활도자전)는 목포시 하당 신도심 부지에서 예술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목포 지역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려 업체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자기 및 전통자기 전시'와 '도자기 제작 시연', '어린이 도예교실', '남도 국악 한마당' 등으로 구성되었다. 1997년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옹기 등 도자기 전시 및 판매를 위주로 운영하여 지역 내 소득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1998년에는 개최 장소를 갯바위 문화예술회관 옆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등 목포권 도자기 생산업체의 도자기 전시 및 판매와 함께 기타 체험·부대 행사를 진행토록 하여 목포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한국 현대 도예 특별전시와 한국 도자기 장신구 특별전시, 목포 도예 공모전 등 도자산업 종사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접시 닦기 대회, 도자기 가수왕 선발대회, 신안 유물 보물찾기대회 등이 운영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목포세계도예프렉스포를 개최하여 '산업도자기 미래전', '국제도예공모 우수작품전', '작가초대전' 등 전시 프로그램과 전통도예의 기법과 성형방법 비교 시연, 국내 전통도예 작가와 세계 민속도예작가들이 참가하는 워크숍, 세미나 등 학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목포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1년 목포도자기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도자기 전시 행사, 체험 프로그램,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도자기 전시 행사 프로그램에는 '목포 국제도예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도자기로 만든 도자 장신구전', '도자 전시·판매전'으로 구성되었고, 체험 프로그램에는 '강태공과 도자기의 만남', '도자기 체험 교실' 등이 있었으며,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한마당', '락 페스티벌', '야외

웨딩 페스티벌, '컵테일 쇼'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목포도자기축제는 개막식, '축하공연', '불꽃놀이', '가야금공연', '퀴즈대회', '어울마당', '가요제', '청소년 한마당 행사', '장기자랑', '도자기 빚기 경연대회', '도자기 깜짝 경매', '웨딩 패션쇼', '음악회', '통기타 및 색소폰 라이브 공연', '도자기 가수왕 선발전' 등이 운영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2003년 축제는 7회째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축제의 운영을 이벤트 업체에 위탁하여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생활자기 홍보와 판매라는 산업축제의 목적이 불명확 하였으며, 관련 협회의 소극적 참여와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목포도자기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자기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전적으로 축제를 주관하면서 협회 축제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우선 협회가 축제 전반에 대해 기획하고 운영하며, 목포시에서는 일부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이밖에 2003년의 프로그램은 '길놀이', '시민걷기대회', 개막식 등 의식행사, '공방도자전', '도자 상차림전', '대학생 도예작품전시' 등 전시 행사, '도자기 성형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노천소송', '도자 가훈 갖기' 등 체험 행사, '청소년 댄스', '사물놀이', '청소년 어울마당', '락 페스티벌', '마당극 공연' 등 공연과 행사가 운영되었다.

나. 2008~2015년

목포도자기축제는 2004~2007년까지 목포시와 도자기 축제는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4년간 개최되지 않다가 2008년부터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2008유달산봄맞이축제, 2008북항회축제와 동시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적극 유인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도공 진혼굿', '언플러그 콘서트', '오카리나 공연' 등 간이무대 공연과 '다도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물레 시연 체험', '도자기 핸드 페인팅', '공예품 전시관' 등 체험·전시 행사, '항아리 소원 쓰기', '투호 던지기', '도자기 홍보관' 등 부대 행사로 구성되었다.¹⁸⁾

2009년부터는 제10회 목포도자기축제로 명명되어 개최되었는데 이때 이벤트성 공연은 지양하고 도자기 판매 및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와 연계하여 동시 개최함으로써 음식업 관계자들을 축제장으로 유도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 도자기 공모전 입상작품들을 전시하였다. 특히 갯바위 공원, 생활도자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시네마 음악회', '목포시민 노래자랑', '생활도자기 경매', '국악대전 한마당' 등 본행사와 '물레 시연 놀이', '황토랑 놀기', '장작 가마 체험', '항아리 소원 쓰기', '라쿠카마 체험(도자기 목걸이 만들기)', '도자기 탈 만들기' 등 체험 행사, 그리고 '초청

17) 『지역 대표 축제 개발Ⅵ』, 목포시, 2003.

18) 『2008 유달산 봄맞이축제 세부추진계획』, 2008.

작가 워크숍, ‘생활도자이야기’, ‘옹이의 봄꽃향기정원’, ‘목포의 사계 전시’, ‘다완 전시회’ 등의 전시 행사로 구성되었다.¹⁹⁾

그림 8 2008 목포도자기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도자기 빚기 체험

항아리 소원 쓰기

이후 제10회 축제는 축제 장소 변경, 프로그램 확충 등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율성 높은 행사장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를 표현하는 체험프로그램까지 준비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2008년도와 비교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을 토대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제의 주제가 목포 지역의 주요 관광이미지와 크게 연관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다. 보통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목포도자기축제는 축제를 준비하는 비용과 대비하여 큰 성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워 보이며, 단순히 도자기를 판매하려는 지역축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였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줄 축제의 기발한 발상 전환이 필요한데, 목포도자기 축제는 강진청자축제의 주제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축제 발전에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수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시설 개발을 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강진청자축제와 대립하기보다는 비슷한 주제지만 내용은 확연히 다른 도자기박람회 형식의 축제 기획과 도자기 판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안 국제공항 및 KTX로 인한 접근성 확대는 목포 관광 발전에 좋은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평가되었다.²⁰⁾

19) 『제10회 도자기 축제 기본계획안』, 2009.

20) 『제10회 목포도자기축제 평가보고서』, 2009.

또한 목포도자기축제를 방문한 모든 관광객이 성공한 축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객 중심적의 사고를 가져야 하고, 행사장에 배치된 안내원의 역할, 주차 공간 및 행사장의 접근성,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행사진행의 전반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준비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¹⁾

그림 9 2009 목포도자기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우리차도 체험

도자기 모자이크

2010년 목포도자기축제는 ‘추모 한다레’, ‘난타’, ‘도자기 특별 경매’, ‘목포시립무용단 공연’, ‘목포시립합창단 공연’, ‘밤하늘의 색소폰 연주’ 등 본행사와 ‘도자기 물레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도자기 탈 만들기 체험’,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 ‘상상 흙 놀이 체험’ 등 체험·부대 행사, ‘대학 도예 홍보 전시관’, ‘목포 5미(味) 음식장터’ 등 판매 행사를 기획하였다.²²⁾

2011년 목포도자기축제는 ‘도자기 전시 판매관’, ‘상차림 기획 전시관’, ‘도자기 체험’, ‘세라믹 색종이’, ‘개구쟁이 흙 놀이터’, ‘목공예품 전시관’, ‘리본, 비누 공예(전남여성프라자)’ 등의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었다. 2012년에는 ‘물레 시연’, ‘도자기 빚기 체험’, ‘세라믹 색종이 체험’, ‘압화공예’, ‘양초공예’ 등 7개 참여 체험 행사와 ‘상차림 기획전’, ‘초대작가 워크숍’, ‘도자기 경매관’ 등 4개의 특별 기획 행사, ‘도자기 및 전통 공예 판매관’ 등의 전시판매 행사로 구성되었다.²³⁾

이밖에 2013년에는 축제명을 목포생활도자전으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는데, 프로그램은 크게 특별 기획 행사, 전시 판매 행사, 무대 공연 행사, 참여 체험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별 기획 행사는 ‘초대작가 워크숍’,

21) 같은 책.

22) 『제11회 목포도자기축제 세부추진계획』, 2010.

23) 『제13회 목포도자기축제 추진계획』, 2012.

‘찾상차림 기획전’, ‘중국 도자 전시관’, ‘도자기 경매’, ‘점토 빚기 경연대회’로 구성되었고, 전시 판매 행사에는 ‘도자기 판매관’, ‘전통 공예품 전시 판매’ 등, 무대 공연 행사에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체험 행사에는 ‘도자기 빚기 체험’ 등 11종의 체험 행사로 구성되었다. 2014년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실버가요제’, ‘목포 팔경 콘서트’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16회째 개최된 2015년 목포생활도자전은 ‘초대작가 워크숍’, ‘도자기 경매’, ‘도자기 및 전통 공예품 전시 판매관’, ‘봄나들이 콘서트’, ‘평화광장에서 만나요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1회부터 제16회 목포생활도자전까지 이어오는데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 유형이 유사한 점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제16회 축제의 총평에서는, 우선 지역 도자 산업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데, 목포생활도자전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시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관심 제고 및 저변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특화된 콘텐츠가 부족하여 판매 장터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생활도자박물관 권역에서 개최하거나 전시 연출, 판매가격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²⁴⁾

표 6 제16회 목포 생활도자전 프로그램 구성표

구분	내용
특별기획행사	· 초대작가 워크숍 - 초대작가: 추금숙, 박미경, 송길홍, 이영탄, 박종현 - 전문도예작가의 도자기 성형과정 시연 · 도자기 및 고미술품 경매 - 전문경매인의 도자기 및 골동품 현장 경매 진행
전시판매행사	· 도자기 판매관(30개 업체, 34개 부스) - 생활도자기 및 전통도자기 전시 판매 · 전통공예품 전시판매(10개 업체, 10개 부스) - 다양한 종류의 전통공예품 전시·판매
참여체험행사	· 물레시연 및 체험 · 도자기 빚기 체험 · 세라믹 색종이 체험 -반제품에 세라믹색종이를 이용한 문양 넣기 체험 · 세라믹 핸드 페인팅 체험·초벌구이 된 반제품에 물감 채색 체험 · 상감기법 체험 · 전통 월빙 문화 체험 -목공예, 천연비누·염색, 압화공예, 클레이공예 등 · 전통한지 체험, 전통차 시음회, 도자기 포토존
무대공연행사	· 전자비이올린콘서트 · 찾아가는 예술 공연 -모던댄스, 성악, 대중가요 · 평화광장에서 만나요 -밸리댄스, 대중가요 · 봄나들이 콘서트 -대중가요

자료: 목포문화관광(<http://tour.mokpo.go.kr>).

24) 『제16회 목포생활도자전 결과 보고』, 2015.

3) 목포항구축제²⁵⁾

(1) 유래 및 특성

목포항구축제(구 목포해양문화축제)는 2002년에 목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는 용역 발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표 축제 개발 용역 결과, 용역기관에서 해산물과 어시장, 내항과 북항 지역의 수산물 판매와 병행하는 데 있어 목포항구축제를 제안하였으나, 공청회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중단되어 용역성과품 납품 이후 활용하지 않았다. 2003년에는 기존 유달산꽃축제를 확대하여 꽃과 문화·예술, 해양 등 다양한 테마로 시내 전 지역에서 권역별로 개최하고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여 목포시의 대표축제로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시의회 제안 설명 결과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5년 목포시청에 관광기획과가 신설되면서 대표축제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표축제 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등 대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5년 11월 경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 회칙 제정과 함께 연구모임을 갖고, 축제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2006년에 목포해양문화축제라는 축제명으로 처음 개최되었다.²⁶⁾

표 7 목포해양문화축제 개요(2006~2015)

연도	개최 기간	장소	주최/주관
2006	04. 08.(토)~04. 16.(일)	평화광장, 유달산 등	목포시/목포 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07	07. 25.(수)~07. 29.(일)	평화광장 일원	목포시/목포 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08	08. 01.(금)~08. 05.(화)	평화광장 및 평화바다	목포시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2009	07. 31.(금)~08. 04.(화)	"	
2010	07. 30.(금)~08. 03.(화)	"	
2011	07. 29.(금)~08. 02.(화)	평화광장, 삼학도	
2012	08. 03.(금)~08. 07.(화)	"	
2013	08. 02.(금)~08. 06.(화)	"	
2014	08. 01.(금)~08. 05.(화)	삼학도 및 선창 일원	
2015	07. 24.(금)~07. 28.(화)	목포항, 삼학도	

자료: 목포시 제공.

그림 10 목포해양문화축제 포스터(2006, 2015)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



2015 목포해양문화축제

자료: 목포시 제공.

25) 2006년 목포항구문화축제로 개최하였다가 2015년부터 목포항구축제로 명명하여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음.

26)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 종합결과보고서』, 2006.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는 기존 축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체제에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전체적으로 발전적 의미를 내포하는 축제가 되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획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조직, 기획, 집행의 변화 속에서도 발전적인 축제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목포만의 해양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목포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항구와 바다 그리고 빛, 해양레저를 테마로 하여 서남권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국형 관광축제의 대표적인 트렌드인 해양레포츠의 확충으로 해양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2) 개최 현황 및 평가

가. 2006~2010년

2006년 목포해양문화축제는 테마 행사 3종과 바다 기획 행사 13종, 바다 문화 행사 23종, 바다 전시 행사 14종, 바다 체험 행사 11종, 특별 행사 8종,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난장 9종, 꽃의 거리 유달산 난장 8종, 북향 활어회 난장 9종, 동명동 홍어·젓갈 난장 9종, 부대행사 2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유달산꽃축제와 동시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는 목포시와 축제추진위원회, 관내 법인기획사 3사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포시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축제 추진을, 실행사는 실행의 3개 축을 맡아 유기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24만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축제 명칭과 프로그램 공모와 동시에 전국 기획사 403개사에 대한 종합기획안 공모를 통해 목포 대표 축제 개발 홍보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고, 지역축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목포의 특성을 살린 주제와 컨셉을 도출하였다. 전일 행사로 진행된 ‘목포풍어제’와 ‘어선퍼레이드’, 개막 퍼포먼스를 비롯한 ‘목포 평화바다 선포식’, ‘평화바다 해상 불꽃쇼’, ‘띠배 띄우기’와 폐막행사에서는 축제의 주제와 컨셉을 극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규모 주제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출범을 관광객들은 물론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한 몫을 하였다. ‘목포 역사 사진전’, 해양유물전시관의 특별전시관운영, 테마 설치 미술 ‘희망의 깃발’ 등 테마 행사는 목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에게 미래목포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급부상하는 목포의 희망적인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²⁷⁾

그러나 축제 기간이 너무 길었고,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축제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27)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 종합결과보고서』, 2006.

일기 상태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공연 위주로 운영되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이를 위하여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타 지역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목포만의 경쟁력을 가진 대표 프로그램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⁸⁾

2007년에는 '바다와 빛, 꿈과 낭만'이라는 주제로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어 목포와 전남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대중성에 접목시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표출하였으며, 다양한 공연문화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 방문객들의 집객효과를 최대화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 행사, 주무대 프로그램, 해상특설무대, 길놀이 프로그램, 목포해양문화축제 특별행사, 바다체험행사, 바다전시행사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2007년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꾀하였으며, 축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전라남도만이 문화예술 관련 축제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공연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축제라 할 수 있다.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공연 프로그램 중 'B-Boy 목포 페스티벌'과 '방송 축하쇼 그랑블루', '드림 캣 공연' 등의 외부 초청 공연은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려 관람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이었으며 세종문화회관의 뮤지컬 공연 '갈라 콘서트'는 대도시의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목포시의 시립국악원과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등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펼치는 공연은 외지 방문객들에게 목포시의 지역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해군본부 문화공연과 세계민속공연 돌로스 방문단은 축제의 이미지와 상충하며 목포해양문화축제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평가보고서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 대부분 외부 초청공연이어서 올해와 같은 축제의 완성도를 위해서 다른 대규모 외부공연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지역축제의 성격상 외부공연에 의지하는 것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축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여 보다 근본적인 축제의 프로그램 기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을 축제의 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²⁹⁾ 아울러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대형 풍물놀이, 청소년 길놀이, 군악대, 고적대 퍼레이드 등을 기획하여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8) 앞의 책.

29)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평가보고서』, 2007.

그림 11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뮤지컬 「이순신」



전통한선 육상전시 및 돛올리기 체험

2008 목포해양문화축제는 ‘해양의 꿈 미래로! 목포의 빛 세계로!’라는 주제로 목포 평화광장 및 평화바다에서 개최되었는데,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주무대에 큰 변화를 주었다. 2007년에는 평화광장 주무대(지상)와 해양특설무대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해양특설무대에서는 불꽃쇼나 바다영화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한정적이었다. 반면 2008년에는 해양특설무대를 주무대로하여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들을 해양특설무대에서 진행함으로써 해양문화축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해양특설무대의 관람석의 공간이 한정되어서 축제 방문객들이 공연 관람을 하는 데 불편을 준 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구성원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³⁰⁾

또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 축제의 주제인 해양문화라는 것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었고 해양문화라는 포괄적인 축제 주제를 관광객에게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2008년을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공연 행사로 큰 차별성이 없었고, 해양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큰 진전이 없어 축제 정체성의 부재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축제 발전을 위한 방향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전문성을 가진 조직구성원 확보와 함께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2008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개막 및 폐막행사를 진행하였고, 미래 잠재 관광객인 청소년들을 축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2008 청소년 페스티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목포해양문화축제만의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색 해양스포츠 체험, 해양 엑스포(EXPO) 체험 등을 운영하였다.

2009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총 5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해상 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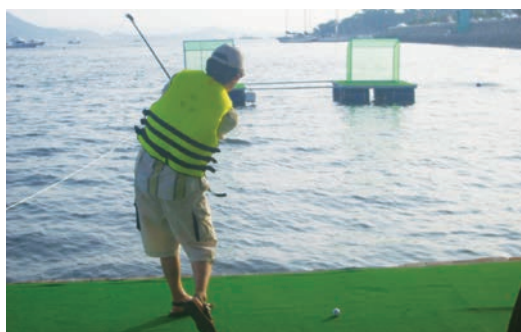
30) 『2008 목포해양문화축제 평가보고서』, 2008.

발'은 목포해양문화축제가 갖는 특화된 아이템을 활용한 주제 행사였으며, '해양 레포츠'는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플라잉피쉬 등 레포츠 체험과 목포 국제 호비요트 세일링대회, 요트승선항해체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체험 문화에는 전통한선승선, 노젓기 체험, 국제문화교류전, 2009코리아 비보이 올스타스 등이었고, 전시 홍보에는 서남해안권 해양문화 및 역사자료 전시, 전라남도 F1홍보 전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 향토음식 및 지역특산물 판매와 불멸의 이순신 장신구 체험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2009년은 전년도인 2008년보다 더욱 많은 것들이 개설했다.

그림 12 2008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2008 청소년 페스티벌



이색 해양스포츠 체험

이처럼 2009년 목포해양문화축제는 5일 간 해상 카니발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비치파라솔을 축제장 곳곳에 비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하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수상레저 체험시설물의 경우 바다 위에 규모를 크게 늘리고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용객의 수가 매우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설물들은 적조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자원봉사활동도 비교적 조직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를 올렸으나 일부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게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 2009 목포해양문화축제의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해상 카니발의 전국적인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상 카니발에서는 목포의 해양문화만을 소개하였으나, 향후에는 전국 시·군 및 목포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선박들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적인 축제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체험존을 확대 운영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모성 투자보다는 매년 재사용하는 시설물 설치에 연차적이고 누진적인

투자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제시되었다.³¹⁾

그림 13 2009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해군 군악대 공연



요트승선 항해 체험

2010년에는 목포해양문화축제만이 갖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연출되는 해상카니발을 더욱 확대하여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상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과 장비 준비를 완벽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2010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컨셉은 자유였는데 세계의 모든 문화가 들어오는 항구도시 목포를 표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양각색 해양문화를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연출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4개의 분야로 분류되었는데, 해상 카니발 15종, 특별 행사 5종, 평화바다 체험 프로그램 21종(해상 11종, 육상 10종), 기획 전시 행사 4종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나. 2011~2015년

2011년에는 평화광장과 삼학도에서 동시 개최되어 축제장 공간을 더욱 확대하였다. 평화광장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해상카니발과 바다분수 불꽃쇼를 활용한 불거리와 해양레저체험을 위주로 운영되었고, 삼학도에서는 전통해양문화와 바다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였다(2011 목포해양문화축제 세부실행계획안, 2011). 평화광장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한여름 밤의 콘서트, 평화바다 락 콘서트, 해변가 프린지 무대, 시민 노 젓기 대회, 수상 레포츠·물놀이 체험, 전통배 노 젓기 체험, 세계 전통문화체험관 등이 운영되었고, 삼학도에서는 목포

31) 『2009 목포해양문화축제 평가결과보고』, 2009.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삼학도 전통 마당극 난장, 우수해양 전통문화공연, 나만의 도자기 빚기, 전통놀이 체험, 클레이아트 체험, 소원기원 띠배 만들기, 난영 인력거 체험, 전통 한지공예 체험 등이 운영되었다. 특히 2011 목포해양문화축제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향상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주무대 활용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삼학도 무대와의 분산 개최를 실시하였으며 축제 기간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2011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축제 초기 당시에는 축제의 정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목포시 지역 내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밖에 목포해양문화축제 기간 동안 주변 지역의 강진청자축제와 정남진장흥물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축제들과는 다르게 목포해양문화축제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야간에 운영되어 주간에는 주변 지역을 찾아 휴가를 즐겼던 관광객들이 야간에는 목포해양문화축제장으로 대거 몰려 축제 주무대인 평화광장과 삼학도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축제 장소를 이원화한 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분산 개최하게 되면 예산 낭비와 기타 자원 낭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의 참여율과 비교해 볼 때 경우 분산 개최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또한 축제 기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진행시간 안내가 미흡하여 관광객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축제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야간에 진행되다보니 안전사고와 연관되어 있고, 주차공간 등의 공간이 협소하며,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향후 축제장 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림 14 2011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해상카니발 바다분수



전통배 노젓기 체험

2012년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축제 공간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남녀노소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 길러콘텐츠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평화광장에서는 최신 트렌드와 전통 해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행사를 연출하였고, 삼학도에서는 목포대교 연계 에너지가 넘치는 행사를 연출하였다. 또한 정형화된 기념의식 대신 인터뷰를 통한 영상메시지 전달 등으로 축제를 차별화하였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해상 및 남도 갯길 퍼레이드로 축제를 시작하였다. 평화광장의 프로그램으로는 남도 갯길 길놀이, 목포 춤추는 바다쇼, 목포 앞바다 낚시체험, 우수 해양 전통문화 초청공연, 퓨전국악콘서트 등이 운영되었고, 삼학도의 프로그램으로는 목포시립국악원, 여름바다 낭만가요제, 여행을 떠나요, 목포시립무용단, 목포시립교양악단, 목포 락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상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전통한선 노 젓기 체험, 목포 앞바다 요트 승선 체험, 목포 앞바다 보트 승선 체험, 카약 체험으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2012년 축제는 축제장 운영 및 관리면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특히 축제 프로그램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욱 많이 진행되고 관광객들 또한 야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데, 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해 있고 일부 관광객들이 일시에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를 항상 유념하도록 하여 향후 안전사고 대처에 있어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를 콘텐츠로 개최되는 축제답게 역사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삼학도 무대 프로그램 중 이난영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옛 추억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목포만의 문화예술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2012년 이후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하는데, 첫째 외국인을 위한 축제장 안내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배려한 안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는 주무대를 평화광장에서 삼학도로 옮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주무대인 평화광장은 프로그램을 구축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과 축제 정체성과도 다소 거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2013년 해양문화축제의 큰 전환기를 이루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에 선정되었던 첫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2013년도 축제의 경우 2012년도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삼학도를 주무대로 하여 개최하였고, 2012년도 프로그램 중 관광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발전하였으며, 축제 명칭을 부각시키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3 목포해양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총 6가지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는 3대항 6대도시였던 목포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는 시민 참여의 대규모 길 놀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목포항 해상시장 파시프로그램으로 전통해양문

화의 대표적 생활상을 국내 최초로 재현하였다. 세 번째는 해양문화축제 불꽃쇼, Again 1897 물고기등 페스티벌, LED 물고기연 날리기, 해상 파시 등대 조명쇼 등으로 구성된 여름밤 빛의 향연이다. 그리고 삼학도 개복쟁이 친구들 바다수영 대회, 한여름 밤 해변 마라톤 대회, 목포항 맛 기행으로 구성되었다. 주제 프로그램으로는 열정의 디제이 파티, 목포밤바다 야경투어, 이난영 추모 퍼포먼스, 청소년 페스티벌 등이 있었으며,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삼학도 난장 페스티벌, 근대 해양역사 골목길 투어, 목포 수산물 그랜드 세일, 삼학도 수로길 레포츠 체험, 해상 익스트림 스포츠 챌린지 등이 운영되었다. 이밖에도 해상에서 즐길 수 있는 바다 출렁다리 체험, 해상 물놀이존(수상자전거), 삼학도 수로길 레포츠 체험, 요트 승선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추억의 선창 재현, 시립 예술단체 아트페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013년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삼학도로 주무대를 옮기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삼학도 평화공원 완공 후에는 더욱 달라진 모습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윈도십이 다소나마 활기를 찾아가고 있고 삼학도 평화공원 완공과 함께 각종 전시관의 관람객이 증가했으며, 목포를 경유하여 도서(島嶼)나 제주도로 떠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이것은 목포해양문화축제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영남권에서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되어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남도 갯길 풍어 길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포 시민들이 대동단결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이를 지속해 나아가야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그림 15 2013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추억의 선창



삼학도 수로길 레포츠 체험

32) 『2013 목포해양문화축제 평가보고서』, 2013.

2013년 목포해양문화축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주무대 개최 장소 변경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의 발전을 꾀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축제 운영상의 안전 문제와 축제 기간 중 태풍 나크리로 인하여 축제 운영 중단과 함께 축제 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시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는데, 우선 해상 파시를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운영함으로써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남도 갯길 길놀이에는 스토리텔링 길놀이로 연출하여 흥미를 더욱 강화하였다. 소원 물고기등 연출은 소원터널을 설치하여 집약적 및 입체적 전시를 하였으며 이 외에도 축제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삼학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목포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항구의 참맛 기행을 운영하여 기존 목포 5미에 새로운 목포 서민음식 별미 5선을 소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홍보 및 판매 하였다.

이밖에 대표 프로그램은 기존 6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하여 완성도를 높였는데,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목포항 해상시장 파시와 남도 갯길 길놀이, Again1897 물고기등 페스티벌로 구성되었다. 주제 프로그램은 예술의 도시, 화합의 도시, 평화의 도시, 낭만의 도시, 건강의 도시, 열정의 도시, 나눔의 도시, 환희의 도시 등 목포를 상징하는 8개의 소주제에 맞추어 기획되었다. ‘예술의 도시’는 목포 시립예술단체들의 특별공연으로 목포시립국악원, 목포시립합창단, 목포시립무용단, 목포시립교향악단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었고, ‘화합의 도시’는 2014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 목포 청소년 페스티벌로 구성되었으며, ‘평화의 도시’는 사랑과 평화의 밤 콘서트, ‘낭만의 도시’는 목포 해양영화제, 제1회 목포 전국사진 촬영대회, ‘건강의 도시’는 한여름 밤의 해변 마라톤 대회, ‘열정의 도시’는 락 페스티벌, ‘나눔의 도시’는 목포 항구 음악회, 열린 무대, ‘환희의 도시’는 바다 콘서트로 구성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목포 어린이바다 과학관 특별전, 요트 승선체험, 전통한선 승선체험, 내항 항구 탐험, 삼학도 수로 탐험, 어촌계 대항 노 젓기 대회, 선구 체험, 목포 별미 체험, 어린이 물놀이 쉼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2014 목포해양문화축제 평가보고서』(2014)에 따르면 그 해의 축제는 태풍 등의 여건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축제를 마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도 갯길 풍어 길놀이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법인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 16 2014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남도 갯길 풍어 길놀이



목포해양영화제

이후 2015년에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축제명인 목포해양문화축제에서 목포항구축제로 변경함으로써, 광범위한 키워드를 탈피하고 서민적이고 낭만적 요소가 내포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항구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었는데, 크게 대표 프로그램, 차별화 프로그램,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대표 프로그램에는 어민들이 직접 파는 생선이라는 ‘어생 코너’를 마련하여 청정해역 서남해안에서 직접 잡은 생선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물난장 파시와 목포는 항구다 공연, 천년의 사랑 갯가 풍어 길놀이 등이 운영되었으며, ‘차별화 프로그램’은 천년의 만남 Love bridge, 어선 집어등 페스티벌, 물고기등 페스티벌, ‘공연·경연 프로그램’으로는 삼학선녀·유달장수 끼 선발전, 다문화 가족 축제, 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센터 및 재능기부공연, 동춘서커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통발 그물 낚시 체험 및 뱃사공 노 젓기 대회, 요트승선, 옹기배·카약·카누체험, 소원물고기 달기체험, 얼음조각체험 등이 있었고, 부대행사에는 목포가요제, 한여름 밤 해변마라톤대회, 춤추는 바다분수 등으로 운영·구성되었다. 이처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목포항구축제를 방문하였다. 『2015 목포항구축제 평가보고서』(2015)에서는 목포항구축제를 통하여 지역문화와 역사적 관점을 스토리화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들을 적극 활용한 점은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목포항구축제의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들이 야간에 진행함에 따라 행사 안내판에 조명등을 설치한 점은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내 축제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축제장 공간을 항구의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수로 난간주변과 인도(人道)에 어망, 그물, 삼각망 등 각종 어구용품을 전시하고 각 어구용품마다 설명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첨하였으며, 별도의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어망 손질 등의 모습을 재현하여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목포항구축제는 해상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축제 기간 중 사랑의 다리(해상 부교)에 안전요원 배치가 미흡하여 자칫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하는 주간 관광객들의 불만 요소 중의 하나가 햇빛을 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유달산과 아름다운 목포 항구가 조망되는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축제 참여 목적일 수도 있는데, 휴게 공간이 없어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통하여 2016년도 개최 시 개선사항을 도출하자면 다음 몇 가지이다. 우선 안전 관리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안전사고는 축제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포항구축제의 공연 프로그램은 대부분 야간에 진행되나, 체험이나 기타 부대행사들은 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해가 지게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휴게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그림 17 2015 목포항구축제 프로그램 및 현장 모습



어물난장 도깨비장터 파시



물고기등 페스티벌

표 8 2015 목포항구축제 프로그램 구성표

구분	내용
대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물난장 '도깨비 장터' · 목포는 항구다(축제서막) · 천년의 사랑 '갯가 풍어 길놀이'
차별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의 만남 Love Bridge · 톡! 쏘는 흥거리, 삼합존·삼합Day · 어선에서 노래하다 · 뱃고동, 어선 집어등 페스티벌 · 불을 쏘다 -물고기등 페스티벌

구분	내용
공연·경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학선녀·유달장수 끼 선발전 ·제1회 목포시 창의적 해상수송선 경연대회 ·다문화 가족 축제 ·청소년 페스티벌 ·나~이런 사람이야 주민센터 및 재능기부공연 ·동춘서커스 ·더위와 함께 춤을~ ·락 페스티벌 ·유달장수·삼학선녀 백일장대회 ·소규모 공연장 운영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그물 낚시체험 및 뱃사공 노젓기대회 ·오토승선 ·웅기배·카약·카누체험 ·소원물고기 달기 체험 ·물고기 등 만들기 체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주제관 운영 ·해저보물이야기 ·얼음조각체험 ·목포문화달빛기행 ·봉송이손톱 물들이기 ·예향 목포 시낭송 체험
부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가요제(전야제) ·한여름 밤 해변마라톤대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특별기획전 ·춤추는 바다분수 기획 운영 ·제24회 목포 전국사진촬영대회

자료: 『2015 목포항구축제 세부실행계획』(목포시청 관광과, 2015).

그림 18 목포항구축제(구 목포해양문화축제) 행사 사진(2013, 2015)



2013 목포해양문화 축제의
밤바다 야경 투어



2015 목포항구축제의
프린지 무대 공연(소원터널)

4)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³³⁾

(1) 유래 및 특성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지역민이 직접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축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축제 현장 속에서 문화적 삶이 오고 가고, 마당이라는 소통공간을 만들어 나눔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상생하는 공동체 축제이다. 또한 남도문화예술의 싹김과 신명을 실천기반으로 가장 전라도적인 문화를 구성형식으로 삼고 한국의 미의식인 마당을 재해석하여 실천하고 세계인들을 초청하여 마당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개최되었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극단 갯돌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1회 우수마당극제전이라는 명칭으로 개최하다가 이후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표 9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요(1996~2015)

연도	개최 기간	장소	주최/주관
2001	05.07.(월)~05.13.(일)	목포문화회관 야외무대 등	극단 갯돌 /갯돌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2	08.15.(목)~08.18.(일)	산정농공단지 옆 녹지공원	극단 갯돌
2003	08.14.(목)~08.17.(일)	산정농공단지 옆 잔디마당	"
2004	08.12.(목)~08.15.(일)	북항공원, 회타운	극단 갯돌, 한국민예총 목포지부 연희위원회
2005	07.22.(금)~07.25.(월)	하당초등학교 특설무대	극단 갯돌, 목포MBC,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 추진위원회
2006	07.27.(목)~07.30.(일)	목포유달예술촌, 모심문화예술센터	극단 갯돌, 목포MBC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 추진위원회
2007	07.26.(목)~07.29.(일)	목포유달예술촌	극단 갯돌, 목포MBC
2008	07.24.(목)~07.27.(일)	목포유달예술촌, 유달산주차장	극단 갯돌, 목포MBC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 추진위원회
2009	07.23.(목)~07.26.(일)	유달산 및 유달예술촌 일대	극단 갯돌, 목포MBC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 추진위원회
2010	07.22.(목)~07.25.(일)	유달산 및 유달예술촌, 차 안다니는 거리 일대	극단 갯돌, 목포MBC /목포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
2011	07.21.(목)~07.24.(일)	"	"
2012	07.26.(목)~07.29.(일)	"	극단 갯돌, 목포MBC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
2013	07.25.(목)~07.28.(일)	"	"
2014	07.24.(목)~07.27.(일)	"	극단 갯돌, 목포MBC /세계마당아트 진흥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
2015	08.27.(목)~08.30.(일)	"	"

자료: 극단 갯돌 제공.

33) 최초 우수마당극제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가 2015년 현재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음.

그림 19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포스터



자료: 목포문화관광(<http://tour.mokpo.go.kr>).

(2) 개최 현황 및 평가

2001년에는 극단 갯돌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극단 갯돌에서 주최하여 개최되었다. 많은 관객들의 호응과 참여는 이후에도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시켜 주었다. 가장 최초로 개최되었던 '2001 우수마당극제전'은 목포문예회관 야외무대와 공연장, 전시관에서 극단 갯돌의 다양한 마당극 공연이 진행되었다.

2002년 제2회 개최 시에는 우수마당극제전에서 '목포우수마당극제전'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개최되었는데, 개최 장소도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옆 녹지공원으로 변경하여 청주놀이패 열림터의 춤극 「농자천하지대봉」, 광주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꽃등들어 넘오시면」, 대전 놀이패우금치의 마당극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경북 성주 금수예술마을의 마당극 「저놀부 두 손에 떡들고」, 경기극단 현장의 가족마당극 「백두 거인」, 제주 놀이패 한라산의 「놀이굿」, 「세경놀이」, 광주 극단 토박이의 아동극 「날아라, 나비야」, 풍류마당, 야외영화상영, 한여름 밤의 콘서트, 다함께 배우는 댄스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2003년에는 2002년 개최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마당극 공연과 개막길놀이가 공연을 진행하였고, 2004년에는 개최장소를 목포북항공원과 북항회타운으로 이동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2004년의 경우 극단 갯돌과 한국민예총 목포지부 연희위원회가 함께 공동 주최하여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는 본 행사에 주제를 설정하여 축제로써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목포 하당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극단 갯돌과 목포MBC,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는데 프로그램으로는 개막길놀이, 유쾌한 혼례마당, 개막라이브공연, 퓨전국악라인, 성진의 마음, 마당극, 영화상영, 코미디 공연, 연극, 광대한 마당, 풍류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이색적이고 실험적인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별난 무대를 비롯해 장르, 나이, 양식을 탈피한 자유로운 무대 공연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목포유달예술촌, 모심문화예술센터에서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우수마당극 공식초청작과 특별기획 공연작, 해외초청작 등의 작품 공연과 풍류마당, 손인형 만들기 체험, 놀자 프로젝트, 장승 깎기, 황토물들이기 등의 참여행사로 진행하여 관객들을 적극 유인하였다.

2007년에는 유달예술촌에서 부산놀이패 '일터'의 코믹 노동 뮤지컬 「팔칠전」, 청수 예술공장 '두레'의 「아이고 으이구」, 경기풍물굿패 '살판'의 「바람을 타고 나는 새」, 진주 큰들 문화예술센터 「여의와 황새」, 가수 초청 공연, 힙합퍼포먼스, 푸리뮤직듀오, 퓨전 타악 공연, 통기타 및 아코디언 연주, 굿 퍼포먼스, 아프리카 타악 연주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 각국의 광대들과 전국의 유명 광대들이 펼치는 빛깔 있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강연회, 전시행사, 체험행사, 워크숍, 중국 기예 공연, 일본의 퍼포먼스와 마임 공연, 미국의 저글링 공연, 아프리카의 타악과 춤 공연, 프랑스의 퍼포먼스 댄스 공연, 영국의 퍼포먼스 공연, 우수마당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어정 7월 호미씻이 한판, 웃음 속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유달산 및 유달예술촌 일대에서 개최하여 우수마당극 초청공연, 마임 공연, 전통탈춤 공연, 퍼포먼스 공연, 현대무용 공연, 콘서트, 특별 전시 행사, 관객객 참여 체험, 워크숍, 물싸움 퍼포먼스, 코미디 서커스 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당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에서 '목포마당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초청공연과 해외 초청공연, 특별기획공연, 신시네트워크공연,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공연 등을 운영하여 목포시 관광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본 행사의 주최 기관인 극단 갯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30주년 기념식, 예술파티, 30주년기념 책자발간, 노래패 어울림콘서트, 미술패 대반동 전시회, 해외 초청 공연, 국내 초청 공연, 지역공연, 마당아티스트 선발전, 전시 행사 등 다양한 공연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로 축제명을 변경하여 여름철 장터마당 형식의 행사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국내 초청작(마당극, 강령탈춤, 장산도 들노래, 탈춤 추는 남자들 등), 해외 초청작(일본의 마리오네트 인형놀이 및 코믹타임, 태국의 거리쇼, 뉴질랜드의 저글링, 브라질의 바두카다와 댄스, 아프리카의 타악, 남아공의 라틴음악 등), 전남 지역 문화 예술 공연(풍물, 소리, 콘서트 등), 청소년 마당아트 퍼포먼스, 어린이 마당 만들기, 극장공연, 어린이 극장, 나눔 전시회, 부적 전시회 등으로 구성·운영되었다.

2013년에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7개를 선정하여 지역 내 예술가 및 사회단체 등이 연계하여 공간의 특색에 맞게 연출하는 시도를 하였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인

목포 원도심 차 안다니는 거리, 근대역사문화예술공원, 옛 일본영사관, 옛 청년회관, 옛 세무서 앞 포장마차, 다순구미 보리마당, 목포 1935 등에서 개최함으로써 목포의 지역 문화를 적극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의 연합 주제공연, 칼노래 칼춤 초청공연, 지신무, 신문지 주라기 공연, 인형극, 무중력인간 퍼포먼스, 공중 퍼포먼스, 퓨전국악 공연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융합한 한국식 새로운 공연 축제로 발돋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화사업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에는 목포의 관광문화적 가치를 예술축제로 제시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목포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들도 방문하여 축제에 참여하였다. 특히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최초로 일반 단체에서 시작하여 목포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목포시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0 2015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프로그램 구성표

구분	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 · 국내 초청 공연 · 해외 초청 공연 · 파이어 퍼포먼스 · 마임공연 · 퍼포먼스 · 탈놀이 · 소리판 · 시민워크숍 · 체험행사 · 프리마켓 · 국제심포지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목포시 제공.

5) 기타 축제 및 행사

목포시는 2000년도 이후 목포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를 발굴하려는 목적과 함께 지역민들의 삶의 증대를 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현재까지 개최되어오고 있는 축제를 제외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왔는데 대표적으로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를 비롯한 ‘목포 선상 해맞이’, ‘부흥동 어울 한마당 축제’, ‘갯바위 난장페스티벌’, ‘마파지 어울 한마당’, ‘연동 사랑의 축제’, ‘동민 한마당 큰잔치’, ‘울피나루 문화축제’, ‘죽교 은

빛축제, '옥고을 한마당 문화축제', '삼학도 맥을 잇는 한마당 대축제', '삼향동 풍년기원축제', '목포 로데오 거리 축제', '삼진항 낙지잡이 한마당축제', '장미의 거리 한마당 축제', '목포 실버건강축제', '목포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등이 목포시의 축제발전의 원천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축제들 대부분은 예산낭비성 축제라는 사회적 질타를 견디지 못하고 현재는 거의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는 2003년에 처음 개최하였다. 매년 자연적으로 평화광장 앞바다에 올라오는 갈치떼 낚시를 관광 상품화하여 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목포 은빛갈치축제는 목포시와 호남방송 등이 함께 주최 및 주관하여 유명가수 초청공연, 낚시대회 등을 진행하였던 축제로서 최초로 개최된 2005년에는 평화광장 일원에서 선상 색소폰 연주, 댄스 스포츠, 사물놀이, 장기자랑, 갈치회 무료 시식회, 낚시대회 등을 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갈치낚시대회, 가족사랑가요제, 댄스스포츠경연대회 등 본행사와 해경시범, 개막공연, 개막식, 마당극, 7080추억의 콘서트 등의 공연행사, 도자기 판매, 낚시용품 판매, 페이스 페인팅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더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막공연, 시민참여 한마당, 평양민속예술단공연 등의 공연행사와 갈치낚시대회, 청소년뮤직페스티벌, 꿈나무 동요세상,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등의 경연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갈치요리체험, 갈치요리시연강습, 갯바위 갈치낚시체험, 해상레포츠 체험 등의 체험행사와 관광홍보관, 전통차 서비스, 썸캡 및 다트게임, 기념품 배부 등의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2008년에는 기존 개최장소인 평화광장과 동명동 종합수산물 시장에서 함께 개최하여 윈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이택림의 가요쇼, 대한밸리댄스협회 공연, 롯데 홈쇼핑 지역 특산물 판매(생증계 판매), 낚시도구 할인점, 연날리기 체험, 어린이 야외극장 등을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았고, 2010년에는 갈치낚시 시즌인 10월 경에 개최하여 주무대 행사와 전시·판매 행사, 체험 행사, 기타 행사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림 20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포스터



제5회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자료: 목포시 제공.

(2) 목포 선상 해맞이

목포 선상 해맞이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일출을 선상에서 감상하는 행사로 목포시를 찾은 관광객과 목포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행사를 목포시의 특별한 관광여행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최초로 개최되었던 2006년에는 씨월드고속훼리에서 주관하여 씨월드고속훼리 선상체험, 유달산 낙조대, 평화광장 주무대에서 개최하였는데, 프로그램으로는 낙조관람, 공연행사, 선상 불꽃놀이, 장작패기, 소원지 적기, 액운 털기, 파배떡우기, 추억의 팽이치기 등 해님이 행사와 갯바위 문화거리, 루미나리에 거리, 유달산, 고하도 조망관람 등 시티투어, 선상공연, 일출감상, 소망풍선 날리기, 소원성취 타고, 새해운세 뽑기, 행운권 추첨 등 해맞이 행사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2007년에는 유달 유원지와 낙조대에서 낙조 관람 및 공연으로 구성된 해님이 1부와 빛으로의 여행, 루미나리에 거리 페스티벌 등 해님이 2부, 선상 해맞이,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등 해맞이,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특별기획으로 12월 한달간 목포역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목포역 광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에는 로데오 광장 준공식을 겸한 로데오 거리 송년 축제와 아름다운 다도해 일출을 감상하는 선상 해맞이 행사를 연계 개최하였다. 로데오 거리 축제 프로그램은 거리 퍼레이드, 난타 퍼포먼스, 개막식, 테크노댄스 공연, 로데오 패션쇼, 사랑의 자선경매, 로데오 미니 콘서트, 카테일 쇼, 그룹댄스 경연대회, 희망의 촛불 행진, 추억의 먹거리 체험, 액털이 접시 깨기, 패션 타투체험, 소망의 벽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맞이 축제 프로그램은 해맞이 길놀이, 마술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 시립교향악단 공연, 소원성취 타고치기, 기축년 OX퀴즈, 해맞이 난타공연 및 일출감상, 경품추천 및 귀향, 신년토정비결, 타로점, 희망 2009 풍선띄우기, 나에게 쓰는 엽서, 신년 가훈 써주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에는 대반동 해님이광장과 로데오광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해님이, 로데오거리, 해맞이 행사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2010년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취소하였다. 2011년에는 신묘년(辛卯年)을 맞이하여 씨월드 퀸메리호 선상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해맞이 길놀이, 해맞이 타악 공연, 신묘년 덕담 코너, 시립합창단 공연, 마술공연, 신년 토정비결·타로점 보기, 신년 가훈 써주기, 신묘년 OX퀴즈 등으로 운영되었다.

이밖에 2012년에는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와 씨월드고속훼리의 공동 주최 및 주관 하에 씨월드 씨스타

그림 21 목포 선상 해맞이 행사 포스터



2012 목포 선상 해맞이 축제

2013 목포 선상 해맞이 행사

자료: 목포문화관광(<http://tour.mokpo.go.kr>).

크루즈호 선상에서 개최되어 목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15년 새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3) 부흥동 어울 한마당 축제

부흥동 어울 한마당 축제는 도시문화의 모순점으로 인한 지역민들 간의 소외감을 허물고,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본 축제는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부흥동 동근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처음 개최 시에는 부흥동민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축구, 배구,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체육행사를 중점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성과가 뛰어나 향후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축제로 확대하였다. 주 행사로는 빅밴드 공연 등의 식전 행사와 각설이공연, 스포츠댄스, 색소폰 연주, 가족노래자랑, 청소년 댄싱, 행운권 추첨 등의 식후 행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 및 목포시민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학습, 풍선아트, 가훈 써주기 등의 체험 행사도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4) 갯바위 난장페스티벌

갯바위 난장페스티벌은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신흥동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된 축제는 갯바위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풍물놀이, 전통 어울마당, 음식 장터 운영, 민속놀이 및 경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제 개최 장소가 목포시의 대표 관광지인 갯바위 일원에서 개최되어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외지 관광객들도 갯바위 난장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5) 마파지 어울 한마당

마파지 어울 한마당은 겨울철에 매서운 서북풍이 불어 목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불렸던 마파지 길목에 대한 추억을 살리고 주민들 간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마파지어울한마당 추진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하였으며 개최 장소는 목포 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길놀이, 노래교실, 어린이 재롱잔치, 창 한마당, 마술쇼, 현악 4중주 공연, 동민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사군자교실 작품전시, 개인별 장기자랑 등이 운영되었다.

(6) 연동 사랑의 축제

연동 사랑의 축제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자매결연 대상지역의 참여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산정1동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최 및 주

관 하에 개최되었고, 연동초등학교와 파크골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파크골프대회, 족구대회, 닭싸움, 레크레이션, 동민 노래자랑, 초청 공연 등이 운영되었다.

(7) 동민 한마당 큰잔치

동민 한마당 큰잔치는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으로 동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규모 축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동명동사무소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명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 하에 개최되었는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대항 동민 노래자랑 등이 운영되었다.

(8) 울미나루 문화축제

울미나루 문화축제는 유달동민과 충무동민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특히 유달동 충무동 주민화합 한마당이라는 축제명을 함께 사용하였다. 본 축제는 유달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달동주민자치위원회'와 '충무동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 주최 및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풍물, 댄스공연, 각설이 타령, 노래자랑, 역사의 거리 탐방, 해변달리기 대회, 문화예술공연 등이 운영되었다.

(9) 죽교 은빛축제

죽교 은빛축제는 죽교동민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합형 행사로서 '죽교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행사는 해인여자중학교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공연, 개회식,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운영되었다.

(10) 옥고을 한마당 문화축제

옥고을 한마당 문화축제는 옥암동민들 간의 화합과 자매결연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화합 한마당을 이루어 동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본 축제는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옥암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사물놀이패 공연, 옥함정 준공 현판식, 옥고을 당산제 및 동민건강기원제, 제1회 옥고을 파크골프대회, 인라인스케이트, 동민줄다리기, 자치센터시연, 노래자랑, 초청공연, 각설이 공연, 직거래장터 등이 운영되었다.

(11) 삼학도 맥을 잇는 한마당 대축제

삼학도 맥을 잇는 한마당 대축제는 삼학동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개최 장소

는 삼학도 일원이었으며 ‘삼학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4개로 분류되었는데, 개회 및 의식행사, 학춤 및 종이학 접기, 민요마당, 스포츠댄스 및 요가 시연 등 ‘학의 나라를 떠는 마당’과 관광객과 함께 삼학도 한바퀴 달리기, 줄다리기, 참석자 레크리에이션 등 ‘한마음 어울 마당’, 풍물놀이,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학들의 “놀이마당”, 종합시상 및 행운권 추첨 등 ‘학의 나라를 접는 마당’으로 운영되었다.

(12) 삼향동 풍년기원축제

삼향동 풍년기원축제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하고 내년도 풍년을 기원하며 부락민이 함께한 축제로서 단합된 동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목포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삼향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추수감사 및 풍년기원제, 효자·효부 등 표창, 경로위안 잔치, 마을별 친선경기, 경로당 장기자랑 등이 운영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전원마을 삼향동 풍년기원축제’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제1부부터 제3부까지 구분하여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13) 목포 로데오 거리 축제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로데오 거리에서 젊은 청년들을 유도하고, 패션 명품 거리로 부각시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2007년도에 보해사가 앞 로데오 광장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 목포시와 목포대학교, 동아TV, 호남방송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였다. 최초 개최되었던 2007년도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은 퀴즈 및 댄스열전, 비어 콘테스트, 대학 및 일반 락 밴드 공연, 비보이, 밸리댄스, 치어, 에어로빅, 보디빌딩시범,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졸업작품 및 지역디자인 패션쇼 등이 운영되었으며 2008년에는 로데오 광장 준공식을 겸하여 선상 해맞이 축제와 연계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로데오 거리 및 로데오 광장 일원에서 목포시가 주최하고 원도심상인연합회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는데, 프로그램은 전남 관악제 우수 참가팀 공연, 로데오 거리 시화전 오픈식, 디자인 도로 준공식, 브로드웨이 재즈 댄스, 도전 코디왕, 로데오 슈퍼스타, 환상의 매직 쇼, 로데오 거리 깜짝 경매, 페이스페인팅, 내 스타일 리폼방, 거리낙서 리폼방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림 22 목포 로데오거리 축제 포스터(2013)



자료: 목포시 제공.

2010년에는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브로드웨이 재즈댄스, 객석한마당, 관현악 공연, 비보이 댄스, 환상의 매직쇼, 락밴드 공연, 로데오 대박추첨, 로데오 깜짝경매, 페이스페인팅, 내 스타일로 리폼방, 길거리 리플방, 로데오상가 폭탄 세일 등이 운영되었다. 2011년에는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붐업 조성을 위하여 식전공연 ‘빛의 환타지’, 벨리댄스 공연, 대박추첨, 가을밤의 탕고 파티, 객석과 함께, 커버댄스 페스티벌, 로데오 가을 패션쇼, 로데오거리 자선경매, 내 스타일 리폼방, 거리낙서 리폼방, 거리예술마켓, 전라남도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청소년 벼룩시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오거리브랜드패션쇼, 오거리문화마켓, 재즈파티, 자선경매, 축하 플래쉬몹, 판화찍기체험, 숯대체험, 천연염색체험, 석고마임, 도자기물레체험, 예술품전시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빈점포 갤러리 쇼케이스, 아트마켓, 모터스포츠 튜닝카 전시전, 유명 레이싱팀 초청 이벤트, 목포지역 연합콘서트, 벼룩시장, 로컬푸드&먹거리, 기타 소공연·체험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로데오 거리 축제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14) 삽진항 낙지잡이 한마당축제

삽진항 낙지잡이 한마당축제는 연산동과 원산동 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과 다양한 참여마당을 제공하고, 90여 척의 소형낙지배 정박지인 삽진항이 우리지역 낙지 산물지임을 알리기 위하여 체험·먹거리촌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삽진항 방파제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연산동과 원산동이 공동 주최하였고, ‘삽진항낙지잡이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풍물패 공연, 각설이 공연, 오키나바 연주, 남도 예술 공연 등 식전 행사와 현대무용, 청소년스포츠댄스 등 공연 행사, 낙지 춤·먹기 대회, 어린이 재롱잔치, 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가야금산조·병창, 남도민요 모음, 트라고을 노래자랑, 석양의 색소폰연주, 손에 손잡고 어울림 한마당 등 무대행사, 윷놀이, 소원풍선 날리기, 어린이 나눔 장터, 낙지잡이 체험 행사, 바다 낚시 체험, 낙지배 퍼레이드, 낙지배 승선 체험 등 상설행사로 운영되었다.

(15) 장미의 거리 한마당 축제

장미의 거리 한마당 축제는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신흥동 장미의 거리 일대에서 신흥동 자생조직단체가 주최하고 장미의 거리 한마당 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각설이공연, 풍물패 시가행진 등 식전 행사와 축제선포식, 축사 등 개막식, 주민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 시립국악원, 신흥동 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표마당 등 본행사, 무료 시음 행사, 먹거리 행사, 특산물 직판 행사 등 상설·부대 행사로 운영되었다.

(16) 목포실버건강축제

목포실버건강축제는 2008년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였던 전국 최초의 노인건강축제로 어르신들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 노인건강축제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첫 개최연도인 2008년에는 유달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어 풍물패의 길놀이, 개막 축하공연, 트로트 한마당, 사물장단, 진도북춤,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경기, 신나는 커플마당, 실버댄스 페스티벌, 건강 짱! 맵시 짱! 선발대회, 세대 공감 축하쇼, 남도의 소리 짓, 어르신 작품 전시회, 전통놀이 한마당, 맨손 활어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축제 개최 장소를 유달경기장에서 목포체육관으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실버명랑 운동회, 화합의 공굴리기, 장수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소원성취 박 터트리기, 실버 경연 대회, 가수 초청 공연, 무료 건강 상담, 노인 복지용구 체험, 손발 마사지 코너, 무료 사진 촬영 코너, 어르신 작품 전시회, 노인 장기요양보험 홍보관, 전염병 예방 홍보관 등으로 운영되었다.

이밖에 2010년도에는 실버명랑 운동회, 효도 상차리기, 실버 예술 경연대회, 초청 가수 공연, 경로효친 유공자 표창, 치매 검사, 가훈 써주기, 손발 마사지, 노인 복지용구 체험,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인물사진 촬영, 어르신 작품 전시회 등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2011년도에는 '목포노인한마당큰잔치'로 축제명을 변경하여 실버명랑 운동회, 경연대회, 건강·치매 검사, 이·미용 서비스, 노인 복지용구 체험, 어르신 작품 전시회,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홍보관, 노인 학대 예방 홍보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가, 2011년 '목포실버건강축제'로 변경하여 2일간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시립무용단 식전공연, 실버선수단 입장, 어버이날 기념식, 경로효친 유공자 표창, 명랑 운동회, 효도상 차리기, 실버 가수왕 선발대회, 실버 예술 경연, 실버 가요 공연, 경품 추첨 등이 운영되었다.

(17) 목포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목포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목포 시내 로데오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본 축제는 2013년 처음 로데오광장 주변 차 안다니는 거리 일원에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위원회와 원도심상인연합회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하였다. 최초 개최되었던 2013년도에는 크리스마스 빛 향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및 오픈공연,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크리스마스 소원트리, 원도심 크리스마스 시즌 파격 세일, 크리스마스 시즌 시네마 특별 할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당신이 주인공!'과 크리스마스 사진 콘테스트, 크리스마스 축제 참여마당 등이 운영되었다.

그림 23 목포크리스마스트리문화 축제 포스터(2013)



제1회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자료: 목포시 제공.

2014년에는 축제를 더욱 확대하여 차 없는 거리 연합상인회와 크리스마스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원도심상인연합회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축제 기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오픈공연, 크리스마스 빛의 향연,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크리스마스 소원트리, 크리스마스 시즌 파격 세일, 시네마 특별 할인, 오디션 프로그램 '당신이 주인공!', 크리스마스 사진 콘테스트, 크리스마스 축제 참여마당 등이 운영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2015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오픈 공연, 크리스마스 빛의 향연, 크리스마스 공연, 크리스마스 소원트리, 크리스마스 시즌 파격세일, 오디션 프로그램 '당신이 주인공!', 크리스마스 사진 콘테스트, 크리스마스 축제 참여마당, 크리스마스 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 이벤트형 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

3. 향도의 문화행사

목포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난영가요제가 있다. 난영가요제는 목포의 눈물이라는 가요를 불러 국 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목포의 위상을 높인 고(故) 이난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1969년에는 목포예총지부가 주관하여 유달산 중턱에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건립하였다. 이 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가 『호남매일신문』이 1973년 지령 제12777호로 폐간되면서 개최가 중단 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목포문화방송(MBC)이 이난영의 탄생 76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하여 개최하였는데 2015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가요제에는 많은 참가자와 관람객 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포시는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단체로는 시립 교향악단부터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연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원이 있다. 이들 단체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 기간에도 초청받아 공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연 행사를 통하여 목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물론 예향 목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알려지고 성장하는데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병원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